

Part 4

2026 장성군 사회지표 부문별 결과

- 1 인구 항목
- 2 시도 공통 항목
- 3 전라남도 항목
- 4 장성군 특성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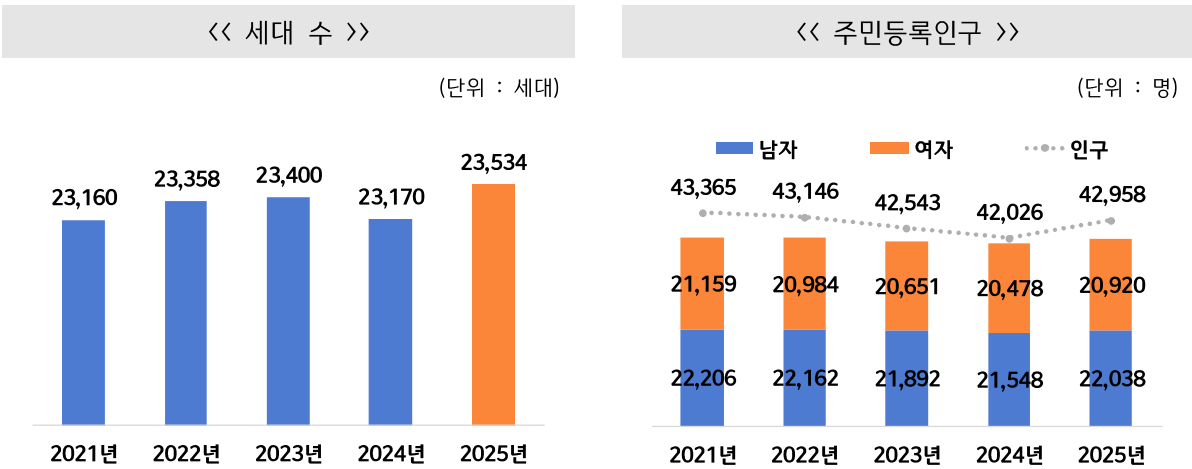
1. 인구 항목

- 1 - 1. 세대 및 인구
- 1 - 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 1 - 3. 합계출산율 및 인구성장률
- 1 - 4. 생산가능인구 및 비율
- 1 - 5.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 1 - 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1 - 1. 세대 및 인구

2025년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 증가

- 2025년 장성군의 세대 수는 23,534세대
 - 2025년 장성군의 ‘세대’ 수는 23,534세대로 2024년(23,170세대) 대비 364세대 증가함
 - 2021년 이후 장성군의 ‘세대’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5년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2,958명
 - 2025년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2,958명으로, 2024년(42,026명) 대비 932명 증가함
 - 2025년 장성군의 ‘남자’ 인구는 22,038명으로, 2024년(21,548명) 대비 490명 증가함
 - 2025년 장성군의 ‘여자’ 인구는 20,920명으로, 2024년(20,478명) 대비 442명 증가함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

구 분	세대	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 0 2 1 년	23,160	43,365	22,206	21,159	100.0	51.2	48.8
2 0 2 2 년	23,358	43,146	22,162	20,984	100.0	51.4	48.6
2 0 2 3 년	23,400	42,543	21,892	20,651	100.0	51.5	48.5
2 0 2 4 년	23,170	42,026	21,548	20,478	100.0	51.3	48.7
2 0 2 5 년	23,534	42,958	22,038	20,920	100.0	51.3	48.7

자료: 행정안전부,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외국인제외

1 - 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장성군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69세

• 2025년 장성군의 연령 분포 중 50~79세 비율이 과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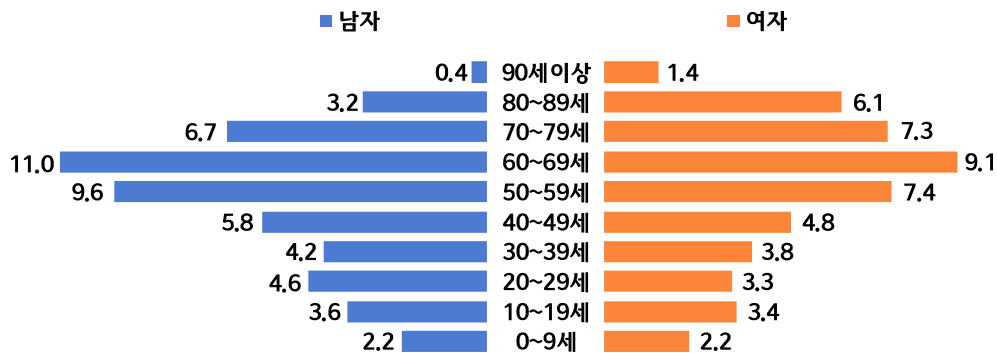
- 2025년 장성군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69세로 전체 '인구' 비율의 20.1%를 차지하며, 이어서 50~59세(17.0%), 70~79세(14.0%) 순으로 나타남
- 2025년 장성군 '인구'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90세 이상으로 전체 '인구' 비율의 1.8%를 차지하며, 이어서 0~9세(4.3%), 10~19세(7.1%) 순으로 나타남

• 69세 이하는 남자가 더 높은 비율, 70세 이상은 여자가 더 높은 비율

- 2025년 장성군 전체 '인구'(42,958명)에서 '남자'의 비율은 51.3%(22,038명), '여자'의 비율은 48.7%(20,920명)로 나타남
- 10~6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보다 높은 반면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구성비 >>

(단위 :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

구 분	인구	인구		구성비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25년	42,958	22,038	20,920	100.0	51.3	48.7
0 ~ 9 세	1,864	937	927	4.3	2.2	2.2
10 ~ 19 세	3,038	1,561	1,477	7.1	3.6	3.4
20 ~ 29 세	3,405	1,989	1,416	7.9	4.6	3.3
30 ~ 39 세	3,400	1,783	1,617	7.9	4.2	3.8
40 ~ 49 세	4,570	2,490	2,080	10.6	5.8	4.8
50 ~ 59 세	7,316	4,145	3,171	17.0	9.6	7.4
60 ~ 69 세	8,622	4,730	3,892	20.1	11.0	9.1
70 ~ 79 세	6,006	2,873	3,133	14.0	6.7	7.3
80 ~ 89 세	3,968	1,357	2,611	9.2	3.2	6.1
90 세 이상	769	173	596	1.8	0.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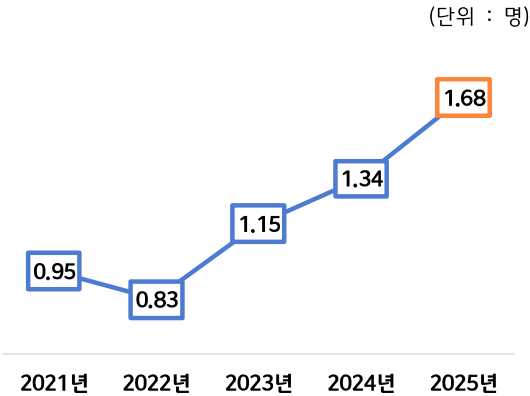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외국인제외

1 - 3. 합계출산율 및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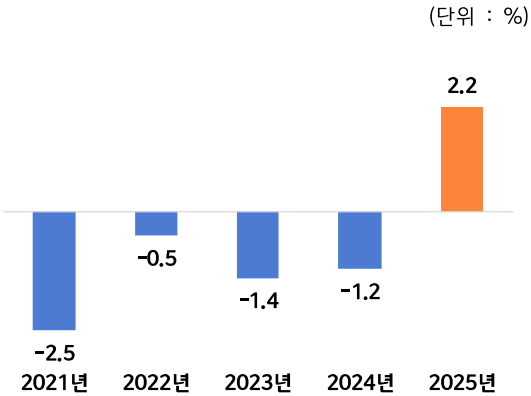
장성군의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증가

- 2025년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68명
 - 2025년 장성군의 ‘(잠정)출생아 수’는 300명으로 2024년(196명) 대비 104명 증가함
 - 2025년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2024년(1.34명) 대비 0.34명 증가하였으며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5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 증가
 - 2025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2.2%로 전년(-1.2%) 대비 3.4%p 증가함
 - 2023년 이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 장성군의 ‘인구성장률’은 양의 성장률을 기록함

<< 합계출산율 >>



<<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 및 인구성장률

(단위 : 명, %)

구 분	인구	출생	합계출산율	인구성장률
2 0 2 1 년	43,365	153	0.95	-2.5
2 0 2 2 년	43,146	126	0.83	-0.5
2 0 2 3 년	42,543	172	1.15	-1.4
2 0 2 4 년	42,026	196	1.34	-1.2
2 0 2 5 년	42,958	300	1.68	2.2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인구동향조사」

주) 합계출산율(TFR)= $\sum_{i=15}^{49} (ASFR)_i / 1,000$,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주) 2025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공식 발표하는 수치가 아닌 잠정치이므로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인구성장률 = [(해당연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100, 전년비임

주) 외국인제외

1 - 4. 생산가능인구 및 비율

2025년 장성군 생산가능인구 24,542명

• 2025년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 2024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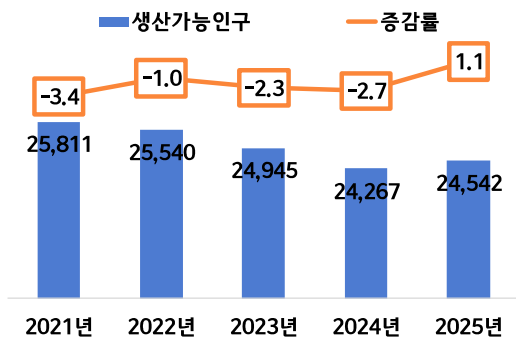
- 2025년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는 24,542명으로 2024년(24,267명) 대비 275명 증가함
- 2021년 이후로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5년 상승폭(1.1%)을 보임

• 25~49세의 생산가능인구 2024년 대비 증가

- 2025년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는 '50~64세'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49세'(40.2%), '15~24세'(1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5년 장성군의 '25~49세' 생산가능인구는 9,856명으로 2024년(9,521명) 대비 335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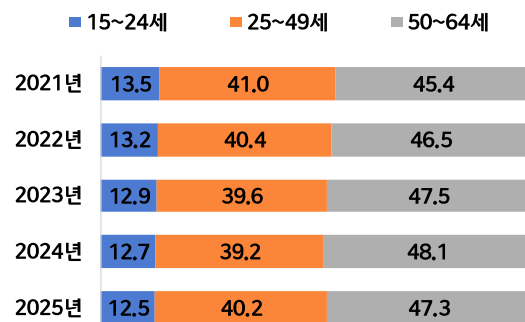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및 증감률 >>

(단위 : 명, %)



<<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

(단위 : %)



생산가능인구 및 비율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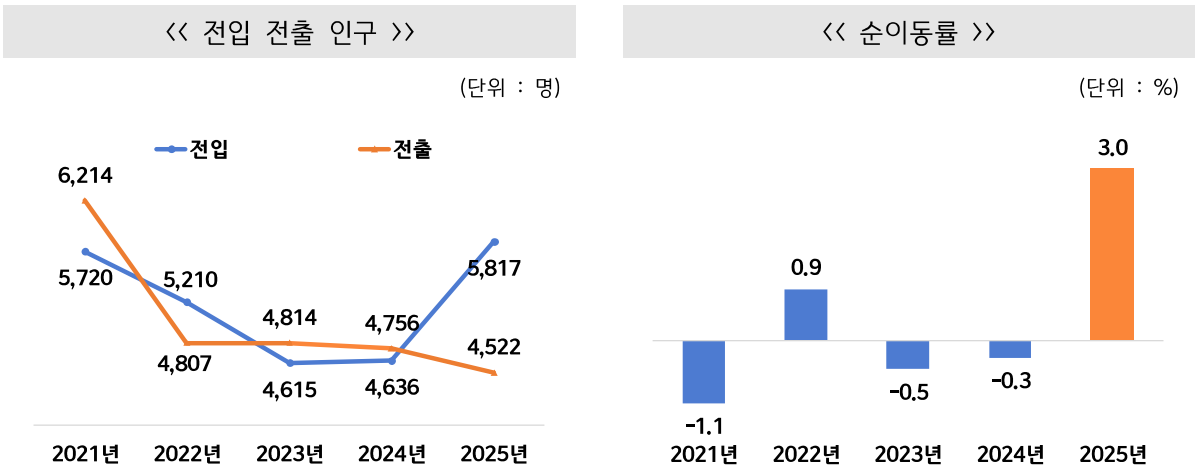
구 분	계	15~24세		25~49세		50~64세	
			비율		비율		비율
2 0 2 1 년	25,811	3,494	13.5	10,595	41.0	11,722	45.4
2 0 2 2 년	25,540	3,363	13.2	10,308	40.4	11,869	46.5
2 0 2 3 년	24,945	3,221	12.9	9,870	39.6	11,854	47.5
2 0 2 4 년	24,267	3,074	12.7	9,521	39.2	11,672	48.1
2 0 2 5 년	24,542	3,068	12.5	9,856	40.2	11,618	47.3

자료: 행정안전부,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1 - 5.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장성군 순이동 인구 2024년 대비 증가

- 2025년 장성군의 전입 2024년 대비 증가, 전출은 감소
 - 2025년 장성군의 '전입' 인구는 5,817명으로 2024년(4,636명) 대비 1,181명 증가함
 - 2023년까지 '전입'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5년 장성군의 '전출' 인구는 4,522명으로 2024년(4,756명) 대비 234명 감소함
- 2025년 장성군의 순이동률 2024년 대비 증가
 - 장성군의 순유입 인구는 1,295명으로 나타나며 '순이동률'은 3.0%로 나타남
 - 2024년(-0.3%) 대비 2025년 장성군의 '순이동률'은 3.3%p 증가함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단위 : 명, %)

구 분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순이동	이동률
2 0 2 1 년	5,720	13.2	6,214	14.3	-494	-1.1
2 0 2 2 년	5,210	12.1	4,807	11.1	403	0.9
2 0 2 3 년	4,615	10.8	4,814	11.3	-199	-0.5
2 0 2 4 년	4,636	11.0	4,756	11.3	-120	-0.3
2 0 2 5 년	5,817	13.5	4,522	10.5	1,295	3.0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전입인구 = 시군 간 전입 + 시도 간 전입 + 시군구 내 이동
 주) 전출인구 = 시군 간 전출 + 시도 간 전출 + 시군구 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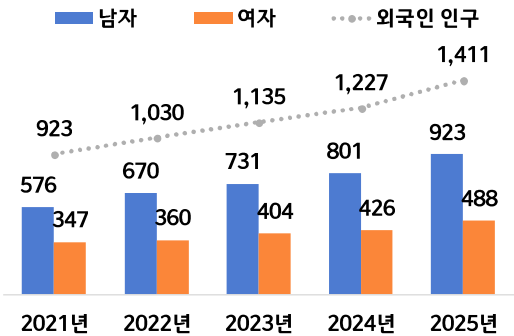
1 - 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장성군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

- 2025년 장성군의 (잠정)외국인 인구는 1,411명
 - 2025년 장성군의 ‘(잠정)외국인 인구’는 1,411명으로 2024년(1,227명) 대비 184명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남자’는 923명, ‘외국인 여자’는 488명으로 나타남
- 장성군 거주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베트남
 - 국적별 ‘(잠정)외국인 인구’는 ‘베트남’이 4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207명), ‘스리랑카’(166명), ‘필리핀’(125명) 순으로 나타남
 - 2025년 ‘베트남’ 인구는 421명으로, 2024년(353명) 대비 68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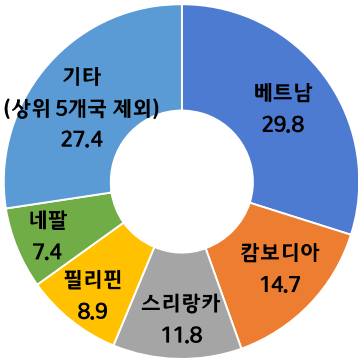
<< 성별 외국인 인구 >>

(단위 : 명)



<< 국적별 외국인 인구 비율 >>

(단위 : %)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단위 : 명)

구 분	외국인 인구	국적별									
		남자	여자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타이 (태국)	미얀마	기타
2 0 2 1 년	923	576	347	282	154	99	96	36	63	35	158
2 0 2 2 년	1,030	670	360	293	165	118	96	55	62	46	195
2 0 2 3 년	1,135	731	404	315	185	117	116	69	72	65	196
2 0 2 4 년	1,227	801	426	353	195	136	110	80	89	68	196
2 0 2 5 년	1,411	923	488	421	207	166	125	105	100	70	217

자료: 법무부, KOSIS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전라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 2025년 하반기 기준
 주) 2025년 외국인 인구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잠정치로 실제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시도 공통 항목

- 2 - 1. 삶에 대한 만족감
- 2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 2 - 3. 일반인에 대한 신뢰
- 2 - 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2 - 5. 공동체 의식
- 2 - 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19세 이상)
- 2 - 7. 가구 월평균 소득
- 2 - 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 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 10. 환경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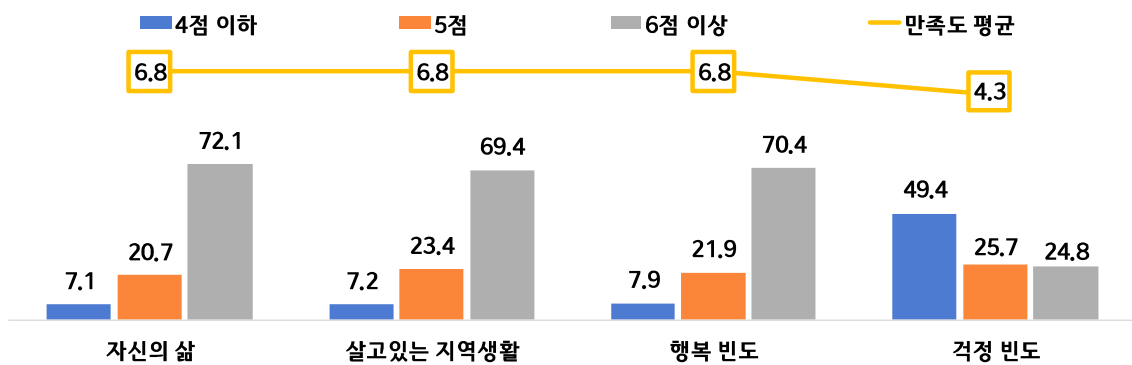
2 - 1. 삶에 대한 만족감

장성 군민들의 높은 행복 빈도

- 2026년 장성 군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삶에 만족
 -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2.1%로 나타남
 -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9.4%로 나타남
- 행복 빈도 평균 점수는 6.8점, 걱정 빈도 평균 점수는 4.3점
 - 행복 빈도에 대해 '대체로 행복(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0.4%로 2025년(69.0%) 대비 1.4%p 증가함
 - 걱정 빈도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지 않음(4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9.4%로 2025년(48.8%) 대비 0.6%p 증가함

<< 삶에 대한 만족감 비율 >>

(단위 : 점, %)



삶에 대한 만족감

(단위 : 점, %)

구분	만족도 평균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 자신의 삶														
2026년	6.8	100.0	0.2	0.3	0.8	1.6	4.2	20.7	14.4	18.8	19.7	10.7	8.5	
2025년	7.1	100.0	0.5	0.2	0.1	1.7	3.3	20.7	12.2	17.3	20.0	10.7	13.2	
(2) 살고 있는 지역 생활														
2026년	6.8	100.0	0.1	0.2	1.2	1.3	4.4	23.4	11.8	19.3	20.7	10.0	7.6	
2025년	7.0	100.0	0.3	0.3	0.2	1.4	3.3	22.3	13.8	15.6	19.9	11.0	11.9	
(3) 행복 빈도														
2026년	6.8	100.0	0.2	0.4	1.4	2.5	3.4	21.9	13.0	20.7	18.1	10.9	7.7	
2025년	6.9	100.0	0.2	0.5	0.7	2.1	4.2	23.2	13.2	15.8	17.3	11.2	11.5	
(4) 걱정 빈도														
2026년	4.3	100.0	7.2	5.9	10.2	14.5	11.6	25.7	7.1	7.6	6.1	1.9	2.1	
2025년	4.2	100.0	8.7	8.3	10.1	11.6	10.1	22.9	12.1	7.8	5.5	2.0	0.9	

2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장성군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3.8점

· 군민 10명 중 7명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68.8%로 나타남
-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65세 이상(91.2%)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88.1%), 50~59세(67.2%), 40~49세(50.8%)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증가함

· 의료서비스 만족도 2024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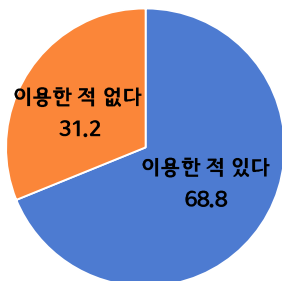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9.6%로 2024년(46.6%) 대비 13.0%p 증가함
- 의료서비스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1%로 2024년(8.8%) 대비 3.7%p 감소함
-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8점으로 2024년(3.6점) 대비 0.2점 증가함

·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시간

- 장성 군민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상위 4개는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22.6%),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16.3%), ‘의료비가 비싸다’(15.5%), ‘전문 의료 인력 부족’(1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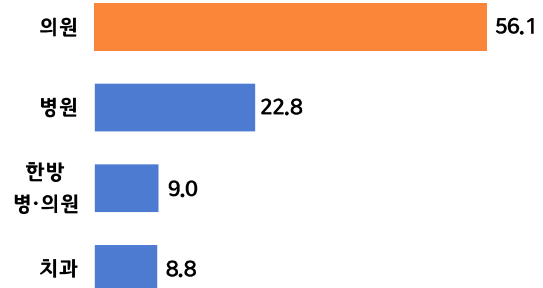
<< 의료기관 이용 비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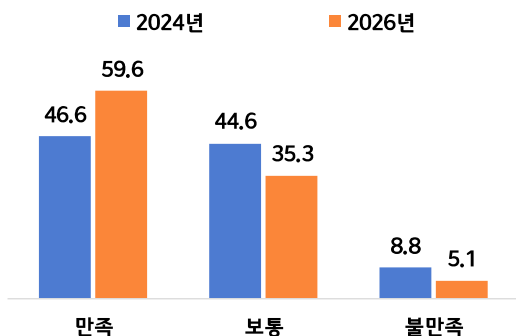
<< 이용 의료기관(상위 4개 항목)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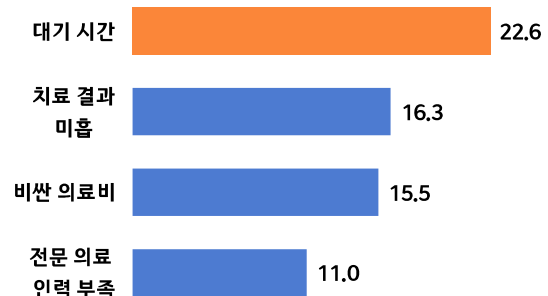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 만족도 >>

(단위 : %)



<<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단위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1) 이용 의료기관

(단위 : 회, %)

구 분	월 평균 이용 횟수	계	이용 한적 있다									이용 한적 없다
				소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병·의원	보건소	약국	기타	
2 0 2 6 년	1.9	100.0	68.8	100.0	22.8	56.1	8.8	9.0	0.6	2.8	0.0	31.2
2 0 2 4 년	2.0	100.0	73.7	100.0	25.5	61.5	5.5	4.8	0.5	1.8	0.2	26.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1	100.0	31.8	100.0	32.3	35.0	32.7	0.0	0.0	0.0	0.0	68.2
3 0 ~ 3 9 세	1.5	100.0	36.6	100.0	15.9	63.0	15.8	0.0	0.0	5.3	0.0	63.4
4 0 ~ 4 9 세	1.5	100.0	50.8	100.0	28.6	58.6	5.2	7.6	0.0	0.0	0.0	49.2
5 0 ~ 5 9 세	1.6	100.0	67.2	100.0	17.3	56.6	14.0	8.3	0.0	3.8	0.0	32.8
6 0 세 이 상	2.2	100.0	88.1	100.0	23.2	57.0	5.2	10.8	0.9	2.9	0.0	11.9
6 5 세 이 상	2.3	100.0	91.2	100.0	24.5	57.2	4.3	11.7	1.0	1.4	0.0	8.8

의료서비스 만족도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

구 분	만족도 평균	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6 년	3.8	100.0	5.1	1.1	4.0	35.3	59.6	35.3	24.2
2 0 2 4 년	3.6	100.0	8.8	1.2	7.6	44.6	46.6	26.7	19.9
< 연 령 별 >									
1 5 ~ 2 9 세	3.6	100.0	0.0	0.0	0.0	49.3	50.7	40.5	10.1
3 0 ~ 3 9 세	3.5	100.0	12.4	0.0	12.4	31.0	56.6	50.7	6.0
4 0 ~ 4 9 세	3.5	100.0	4.6	1.5	3.1	56.3	39.1	17.4	21.7
5 0 ~ 5 9 세	3.7	100.0	9.0	1.9	7.1	36.2	54.8	31.3	23.5
6 0 세 이 상	3.9	100.0	4.1	1.0	3.0	31.3	64.7	37.4	27.3
6 5 세 이 상	3.9	100.0	2.7	0.9	1.8	31.5	65.8	37.9	27.9

의료서비스 만족도 - (3) 불만족 이유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불친절 하다	의료비가 비싸다	치료 결과가 미흡 하다	진료가 불성실 하다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	의료 시설이 낙후되 거나 미비	필요 이상 진료	전문 의료 인력 부족	집에서 의료 기관 까지 거리	기타
2 0 2 6 년	100.0	6.8	15.5	16.3	3.4	22.6	10.3	7.1	11.0	7.0	0.0
2 0 2 4 년	100.0	10.8	19.4	13.0	4.2	20.2	11.0	2.5	12.3	6.0	0.7
< 연 령 별 >											
1 5 ~ 2 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0 ~ 3 9 세	100.0	0.0	0.0	33.3	0.0	0.0	33.3	0.0	33.3	0.0	0.0
4 0 ~ 4 9 세	100.0	12.0	28.5	0.0	0.0	38.0	21.5	0.0	0.0	0.0	0.0
5 0 ~ 5 9 세	100.0	7.8	9.8	20.7	9.7	16.8	9.2	5.6	14.4	6.0	0.0
6 0 세 이 상	100.0	6.3	20.5	12.6	0.0	28.6	4.2	11.1	6.1	10.7	0.0
6 5 세 이 상	100.0	7.5	18.9	14.5	0.0	28.8	2.8	9.6	5.7	12.2	0.0

2 - 3. 일반인에 대한 신뢰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일반인을 신뢰

· 일반인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비율 여전히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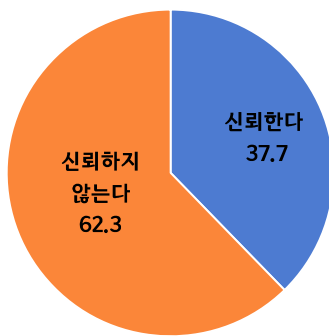
- 일반인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7.7%,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2.3%로 나타나며, 일반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3%로 나타남

·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 연령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모두 44.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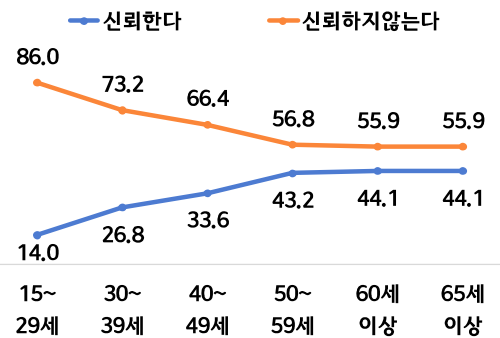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 연령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

구 분	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2 0 2 6 년	100.0	62.3	15.3	47.0	37.7	36.1	1.6
2 0 2 4 년	100.0	60.1	13.7	46.4	39.9	37.6	2.2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86.0	28.0	58.0	14.0	14.0	0.0
3 0 ~ 3 9 세	100.0	73.2	22.2	51.0	26.8	26.0	0.8
4 0 ~ 4 9 세	100.0	66.4	22.2	44.1	33.6	32.8	0.8
5 0 ~ 5 9 세	100.0	56.8	9.0	47.7	43.2	41.2	2.0
6 0 세 이 상	100.0	55.9	11.8	44.1	44.1	42.0	2.1
6 5 세 이 상	100.0	55.9	11.4	44.4	44.1	42.2	1.9

2 - 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 2024년 대비 증가

· 대다수의 군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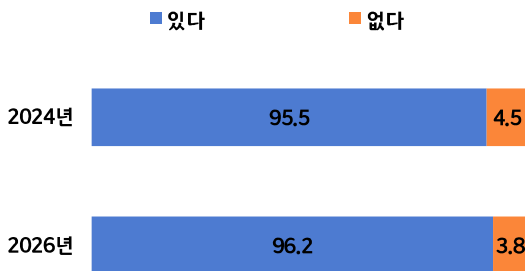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96.2%로, 2024년(95.5%) 대비 0.7%p 증가함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4.2명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 인원'은 4.2명으로 2024년(4.1명) 대비 0.1명 증가함
- 성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96.1%, 여자 96.2%로 나타나며, '평균 인원'은 남자 4.3명, 여자 4.2명으로 나타남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 인원'은 40~49세에서 4.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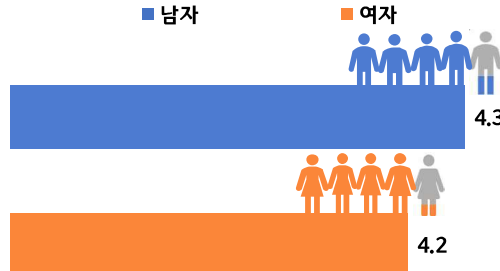
<<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단위 : %)



<< 성별 사회관계별 소통정도(평균 인원) >>

(단위 : 명)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단위 : %, 명)

구 분	계	있다	평균 인원	없다
2026년	100.0	96.2	4.2	3.8
2024년	100.0	95.5	4.1	4.5
< 성 별 >				
남 자	100.0	96.1	4.3	3.9
여 자	100.0	96.2	4.2	3.8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97.9	4.5	2.1
30 ~ 39 세	100.0	100.0	4.5	0.0
40 ~ 49 세	100.0	98.4	4.9	1.6
50 ~ 59 세	100.0	95.3	4.0	4.7
60 세 이상	100.0	94.9	4.0	5.1
65 세 이상	100.0	95.1	4.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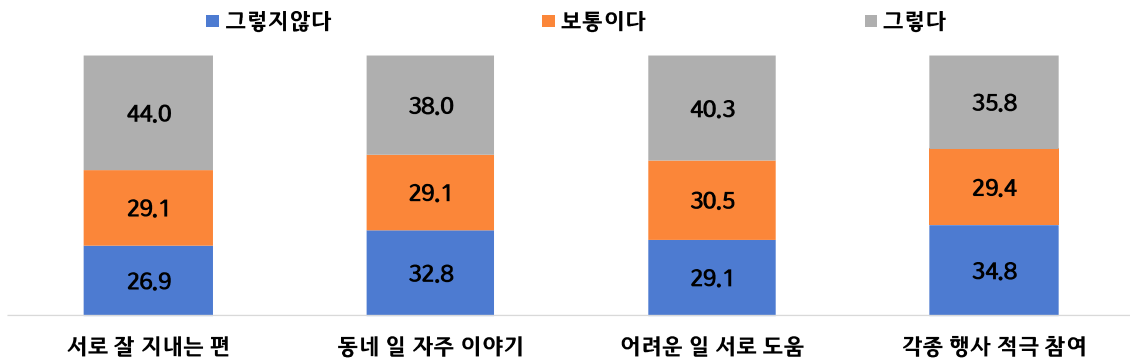
2 - 5. 공동체 의식

군민 10명 중 4명은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동네 주민과 잘 알고 지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돕는 편
 - ‘동네 사람들과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낸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4.0%로 나타났고, ‘보통이다’(29.1%), ‘그렇지 않다’(26.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8.0%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32.8%) ‘보통이다’(2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0.3%로 나타났고, ‘보통이다’(30.5%), ‘그렇지 않다’(2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공동체 의식 >>

(단위 : %)



공동체 의식

(단위 : %)

구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026년	100.0	26.9	9.6	17.2	29.1	44.0	30.4	13.6
2024년	100.0	24.7	7.8	16.9	25.9	49.4	30.2	19.2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2026년	100.0	32.8	12.2	20.6	29.1	38.0	25.6	12.4
2024년	100.0	31.2	11.1	20.1	28.1	40.7	24.6	16.1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026년	100.0	29.1	11.2	18.0	30.5	40.3	27.7	12.6
2024년	100.0	29.0	10.5	18.5	27.8	43.3	26.5	16.7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26년	100.0	34.8	13.6	21.2	29.4	35.8	22.4	13.4
2024년	100.0	34.3	15.3	19.0	27.9	37.8	22.1	15.7

2 - 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19세 이상)

장성군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평균 만족도 2024년 대비 증가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는 평균 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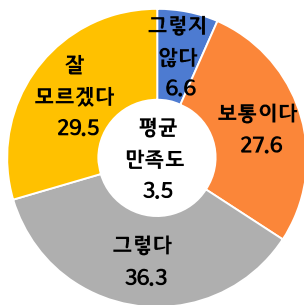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6.3%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29.5%), '보통이다'(27.6%), '그렇지 않다'(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5점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는 평균 3.7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2.8%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27.2%), '보통이다'(25.1%), '그렇지 않다'(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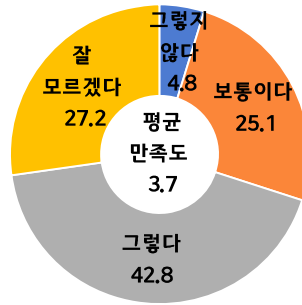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 >>

(단위 : %, 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 >>

(단위 : %, 점)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19세 이상)

(단위 : 점, %)

구분	평균 만족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2026년	3.5	100.0	6.6	0.9	5.7	27.6	36.3	27.5	8.8	29.5
2024년	3.5	100.0	8.2	1.6	6.6	25.5	37.4	29.4	8.0	28.9
(2)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2026년	3.7	100.0	4.8	0.8	4.1	25.1	42.8	30.8	12.0	27.2
2024년	3.6	100.0	6.8	0.6	6.1	28.1	41.9	31.5	10.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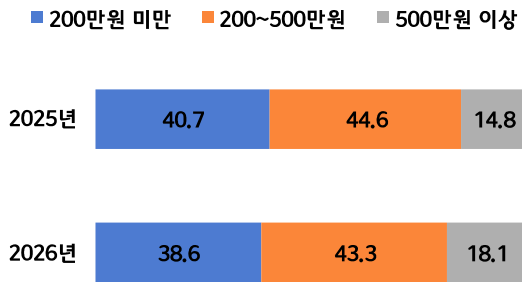
2 - 7. 가구 월평균 소득

장성 군민 10가구 중 6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

- 장성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 2025년 대비 증가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61.4%로 2025년(59.4%) 대비 2.0%p 증가함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성별,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남자 21.1%, 여자 15.0%로 남자가 여자보다 6.1%p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은 북부권 48.5%, 서부권 43.2%, 광주인근권 36.2%, 중부권 3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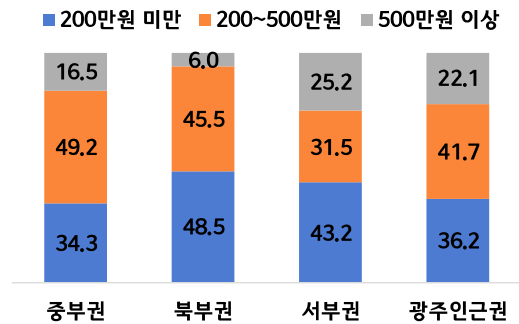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6년	100.0	9.0	15.1	14.5	17.6	15.0	10.7	7.8	2.2	1.4	6.7
2025년	100.0	10.9	15.4	14.4	17.9	16.3	10.4	4.8	4.2	1.7	4.1
2024년	100.0	6.7	18.6	15.2	18.9	11.9	10.5	6.3	3.1	3.5	5.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2	12.0	15.1	21.3	14.8	13.1	9.2	0.2	1.6	5.5
북 부 권	100.0	12.9	20.9	14.7	23.6	16.6	5.3	1.4	2.5	0.3	1.8
서 부 권	100.0	7.1	20.2	15.9	9.2	15.6	6.7	10.3	3.2	0.0	11.7
광 주 인 근 권	100.0	13.3	12.3	10.6	14.4	13.5	13.8	5.4	6.3	3.7	6.7
〈 성 별 〉											
남 자	100.0	6.1	12.2	14.2	17.4	16.6	12.4	8.6	2.5	1.8	8.2
여 자	100.0	12.0	18.3	14.8	17.8	13.4	8.9	7.0	2.0	1.0	5.0

2 - 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장성 군민 10명 중 7명은 범죄피해에 두렵지 않음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024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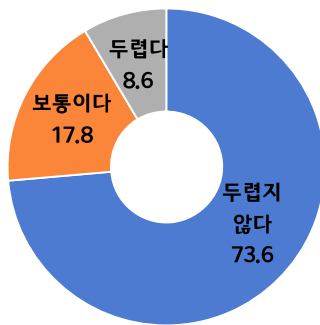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6%로 2024년(72.6%) 대비 1.0%p 증가함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81.4%, 여자 65.4%로 남자가 여자 대비 16.0%p 높게 나타남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024년 대비 증가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2024년(64.6%) 대비 2.1%p 증가함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77.7%로 여자(55.1%) 대비 22.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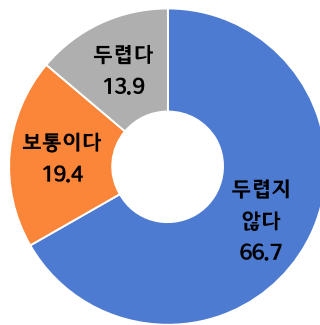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 >>

(단위 : %)



<< 밤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 >>

(단위 :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 분	계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렵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026년	100.0	73.6	39.2	34.4	17.8	8.6	7.8	0.8
2024년	100.0	72.6	35.5	37.1	19.0	8.4	7.5	0.8
< 성 별 >								
남 자	100.0	81.4	48.5	32.9	13.7	4.8	4.1	0.7
여 자	100.0	65.4	29.4	36.0	22.0	12.6	11.7	0.9
(2)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								
2026년	100.0	66.7	33.3	33.4	19.4	13.9	11.4	2.5
2024년	100.0	64.6	32.4	32.2	23.3	12.2	10.0	2.1
< 성 별 >								
남 자	100.0	77.7	45.0	32.7	15.4	6.8	5.3	1.5
여 자	100.0	55.1	21.1	34.0	23.5	21.4	17.8	3.6

2 - 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장성 군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장성군이 안전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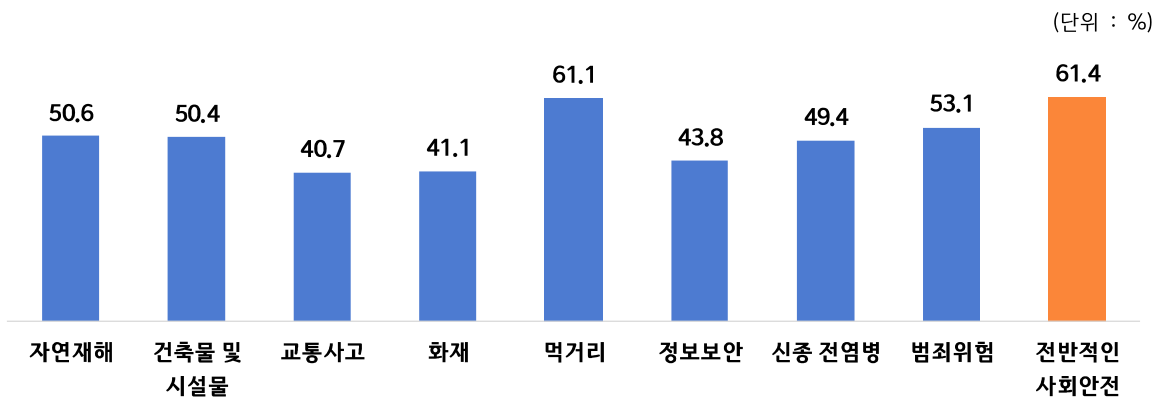
· 장성 군민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전반적인 사회안전

- 2026년 장성군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인 사회안전(61.4%), 먹거리(61.1%), 범죄위험(53.1%), 자연재해(5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먹거리(61.1%), 신종 전염병(49.4%), 전반적인 사회안전(61.4%) 항목의 ‘안전’ 응답 비율은 2024년(58.5%, 43.6%, 58.1%) 대비 각각 2.6%p, 5.8%p, 3.3%p 증가함
- 지역별 장성군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안전’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서부권(73.2%), 광주인근권(72.3%), 북부권(65.8%), 중부권(5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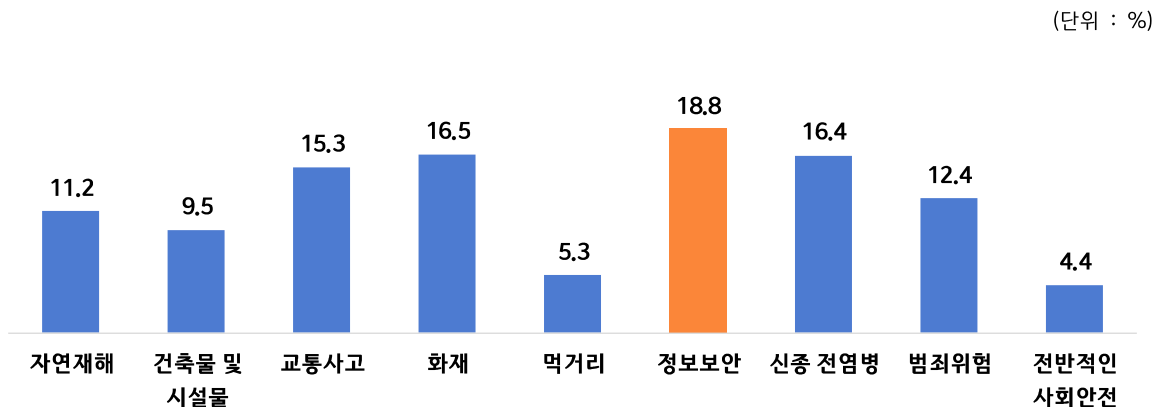
· 장성 군민이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안전환경은 정보보안

- 장성군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불안’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정보보안(18.8%), 화재(16.5%), 신종 전염병(1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교통사고(15.3%), 먹거리(5.3%), 신종 전염병(16.4%), 전반적인 사회안전(4.4%) 항목의 ‘불안’ 응답 비율은 2024년(15.6%, 5.7%, 24.0%, 5.0%) 대비 각각 0.3%p, 0.4%p, 7.6%p, 0.6%p 감소함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안전) >>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불안)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 %)

구 분	계	불안			보통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2 0 2 6 년	100.0	11.2	1.4	9.8	38.2	50.6	41.1	9.5
2 0 2 4 년	100.0	6.9	0.5	6.5	36.4	56.7	44.4	12.3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2 0 2 6 년	100.0	9.5	0.4	9.1	40.0	50.4	41.4	9.1
2 0 2 4 년	100.0	4.3	0.8	3.5	37.4	58.2	45.7	12.5
(3) 교통사고								
2 0 2 6 년	100.0	15.3	1.7	13.6	44.1	40.7	31.6	9.1
2 0 2 4 년	100.0	15.6	3.1	12.6	37.2	47.1	35.3	11.8
(4) 화재(산불포함)								
2 0 2 6 년	100.0	16.5	3.2	13.3	42.4	41.1	33.0	8.1
2 0 2 4 년	100.0	8.8	1.8	7.0	39.0	52.2	39.8	12.4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2 0 2 6 년	100.0	5.3	0.6	4.7	33.6	61.1	44.8	16.3
2 0 2 4 년	100.0	5.7	1.1	4.6	35.8	58.5	45.9	12.6
(6)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2 0 2 6 년	100.0	18.8	4.6	14.2	37.4	43.8	35.3	8.5
2 0 2 4 년	100.0	18.7	2.6	16.1	37.4	43.9	33.2	10.7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2 0 2 6 년	100.0	16.4	5.1	11.3	34.2	49.4	40.0	9.4
2 0 2 4 년	100.0	24.0	3.9	20.1	32.4	43.6	33.7	10.0
(8) 범죄위험								
2 0 2 6 년	100.0	12.4	2.0	10.3	34.5	53.1	42.2	10.9
2 0 2 4 년	100.0	8.6	0.4	8.2	35.0	56.4	43.6	12.8
(9) 전반적인 사회안전								
2 0 2 6 년	100.0	4.4	0.1	4.2	34.2	61.4	46.7	14.7
2 0 2 4 년	100.0	5.0	0.4	4.6	36.9	58.1	45.7	12.4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5.8	0.1	5.6	43.8	50.4	36.8	13.6
북 부 권	100.0	8.8	0.0	8.8	25.4	65.8	45.1	20.8
서 부 권	100.0	0.5	0.0	0.5	26.3	73.2	63.1	10.1
광 주 인 근 권	100.0	2.4	0.5	1.9	25.3	72.3	53.0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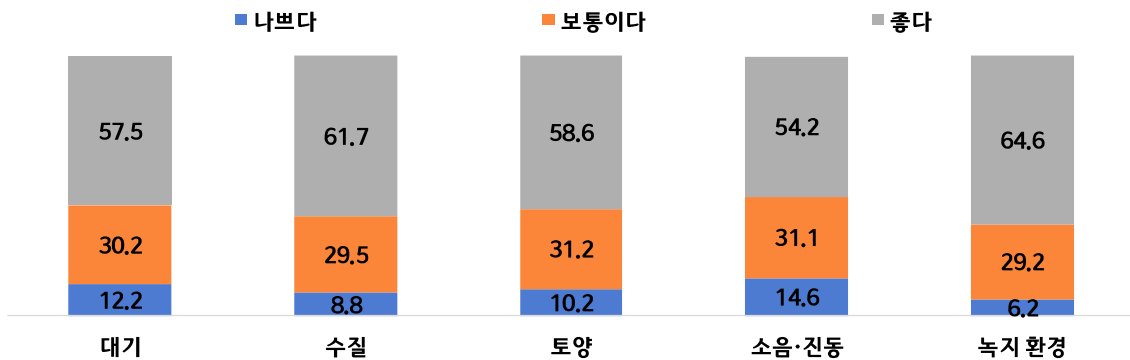
2 - 10. 환경체감도

장성 군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은 녹지 환경

- 장성 군민 10명 중 5명 이상은 환경체감도가 좋다고 생각함
 - 장성군 녹지 환경이 '좋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녹지 환경 항목을 제외한 환경체감도 항목에 대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질(61.7%), 토양(58.6%), 대기(57.5%), 소음·진동(5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대기, 수질, 토양 항목에서 좋다고 응답한 비율 증가
 - 2024년 대비 환경체감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음·진동, 녹지 환경을 제외하고 대기(57.5% 1.1%p, 수질(61.7%) 2.5%p, 토양(58.6%) 4.3%p 증가함

<< 환경체감도 >>

(단위 : %)



환경체감도

(단위 : %)

구분	계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2026년	100.0	12.2	2.4	9.9	30.2	57.5	32.7	24.8
2024년	100.0	12.6	2.1	10.4	31.0	56.4	31.0	25.4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2026년	100.0	8.8	3.5	5.3	29.5	61.7	37.5	24.2
2024년	100.0	8.6	2.3	6.3	32.2	59.2	34.0	25.2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2026년	100.0	10.2	3.8	6.4	31.2	58.6	37.6	21.1
2024년	100.0	11.7	2.5	9.2	34.0	54.3	31.9	22.4
(4) 소음·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2026년	100.0	14.6	3.3	11.4	31.1	54.2	33.6	20.7
2024년	100.0	13.9	1.9	12.0	31.6	54.6	28.4	26.1
(5) 녹지 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2026년	100.0	6.2	0.9	5.3	29.2	64.6	40.8	23.8
2024년	100.0	3.3	0.7	2.6	29.5	67.2	35.3	31.9

3. 전라남도 항목

- 3 - 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 - 2.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3 - 3. 월평균 가구소비
- 3 - 4. 청년 지원 정책
- 3 - 5.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3 - 6. 빈집 활용방안
- 3 - 7.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3 - 8. 쓰레기 처리 만족도
- 3 - 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 - 10.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3 - 11. 여가 활동
- 3 - 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3 - 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3 - 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장성 군민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 견해

· 군민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

-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2.6%로, 2024년(61.5%) 대비 1.1%p 증가함
- 연령별 결혼을 '해야 한다'의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6%로, 2024년(2.2%) 대비 0.6%p 감소함

· 군민 10명 중 6명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

-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4.2%로, 2024년(62.3%) 대비 1.9%p 증가함
- 연령별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희망하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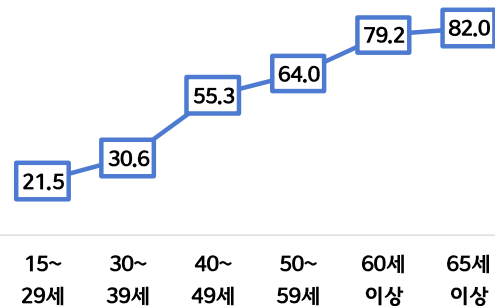
- 자녀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33.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2024년(29.2%) 대비 4.6%p 증가함

·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양육비용 부담

-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양육비용 부담'이 35.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2024년(15.2%) 대비 20.3%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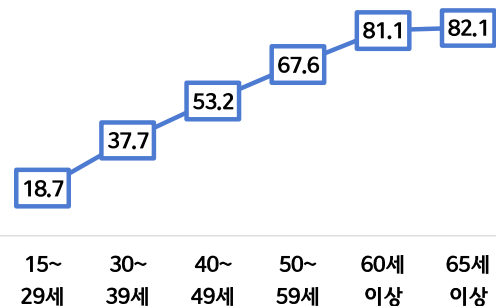
<< 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해야 한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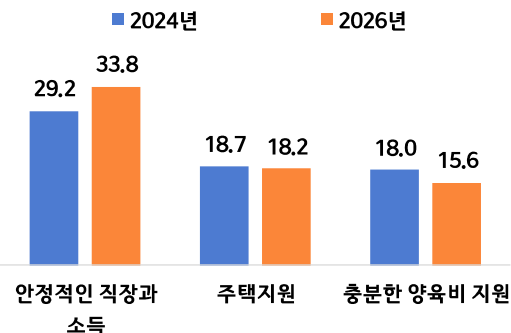
<<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견해(있어야 한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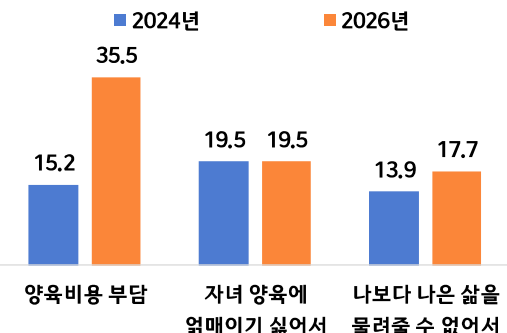
<< 자녀 양육 지원 정책(상위 3개 항목) >>

(단위 : %)



<<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상위 3개 항목) >>

(단위 :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1)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 0 2 6 년	100.0	62.6	27.7	34.9	28.4	1.6	1.4	0.2	7.4
2 0 2 4 년	100.0	61.5	30.4	31.1	33.3	2.2	2.2	0.0	3.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1.5	5.3	16.2	41.1	5.5	5.5	0.0	31.8
3 0 ~ 3 9 세	100.0	30.6	11.6	19.1	53.4	5.8	3.8	2.0	10.2
4 0 ~ 4 9 세	100.0	55.3	10.9	44.5	41.3	1.8	1.8	0.0	1.5
5 0 ~ 5 9 세	100.0	64.0	21.7	42.3	32.3	0.0	0.0	0.0	3.8
6 0 세 이 상	100.0	79.2	42.0	37.2	16.6	0.4	0.4	0.0	3.8
6 5 세 이 상	100.0	82.0	45.6	36.4	13.1	0.5	0.5	0.0	4.5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2) 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계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편이 좋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없어도 된다	없는 편이 좋다	전혀 없어도 된다	잘 모르겠다
2 0 2 6 년	100.0	64.2	28.1	36.1	25.5	2.4	2.2	0.2	7.8
2 0 2 4 년	100.0	62.3	28.7	33.6	32.3	1.2	1.1	0.2	4.1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8.7	1.6	17.1	38.3	7.6	7.6	0.0	35.4
3 0 ~ 3 9 세	100.0	37.7	12.7	25.0	41.7	10.5	8.5	2.0	10.2
4 0 ~ 4 9 세	100.0	53.2	13.8	39.3	42.6	2.8	2.8	0.0	1.5
5 0 ~ 5 9 세	100.0	67.6	21.3	46.3	28.3	0.4	0.0	0.4	3.8
6 0 세 이 상	100.0	81.1	43.1	38.1	14.7	0.5	0.5	0.0	3.7
6 5 세 이 상	100.0	82.1	45.3	36.8	13.0	0.6	0.6	0.0	4.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부모교육	아빠양육 제도문화	주택지원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유치원, 돌봄시설 확충	직장 육아제도 확충	충분한 양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기타
2 0 2 6 년	100.0	11.1	3.9	18.2	33.8	7.8	5.5	15.6	4.1	0.0
2 0 2 4 년	100.0	10.7	2.7	18.7	29.2	7.4	5.8	18.0	7.4	0.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4)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양육비용 부담	일에 지장	자녀 양육에 엄매이기 싫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독박육아 등 양육 시간과 노력 부담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기타
2 0 2 6 년	100.0	17.7	35.5	12.6	19.5	9.8	0.0	4.9	0.0
2 0 2 4 년	100.0	13.9	15.2	7.4	19.5	15.6	2.3	22.8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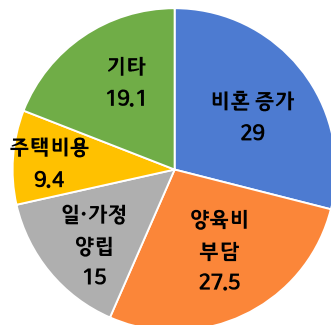
3 - 2.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저출산 원인이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라고 응답
 - 저출산 원인 중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4년(27.1%) 대비 1.9%p 증가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29.0%), ‘자녀 양육비 부담’(27.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5.0%), ‘주택 마련 비용 부담’(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 중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0%로 2024년(27.5%) 대비 1.5%p 감소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26.0%),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20.7%),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17.9%),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1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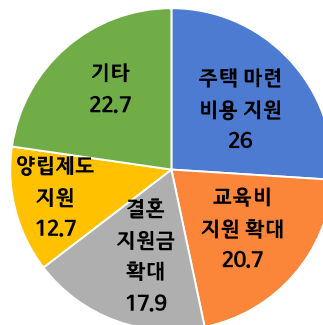
<< 저출산 원인(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1) 저출산 원인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타
2026년	100.0	29.0	15.0	27.5	6.5	6.1	9.4	6.4	0.1
2024년	100.0	27.1	14.5	24.7	3.5	7.9	13.0	9.0	0.4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2)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	임신·출산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2자녀 부터 다자녀 인정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	기타
2026년	100.0	26.0	17.9	12.5	20.7	12.7	4.9	4.9	0.4
2024년	100.0	27.5	19.0	9.7	20.2	14.8	3.9	4.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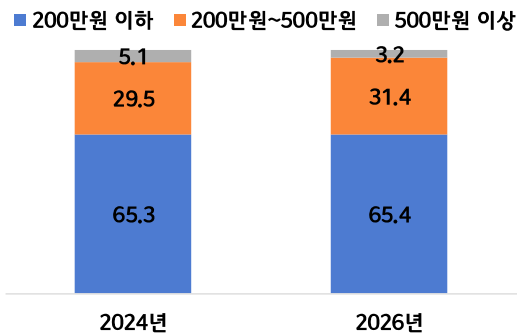
3 - 3. 월평균 가구소비

장성 군민이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

- 장성 군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200만원 이하 소비
 -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에 대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군민은 65.4%로, '200만원~500만원' (31.4%), '500만원 이상' (3.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이 식료품비라고 응답
 -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에 '식료품비'라고 응답한 군민은 44.9%이고, 특히 1순위로 선택한 군민은 50.2%로 나타남
 - '식료품비'를 제외한 문항에서는 '보건의료비'(15.5%), '교통비'(10.0%), '주거비'(9.6%), '교육비'(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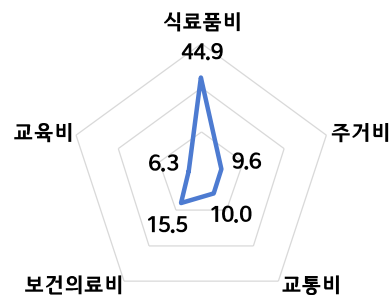
<< 월평균 소비지출액 >>

(단위 : %)



<<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상위 5개 항목) >>

(단위 : %)



월평균 가구소비 - (1) 소비지출액

(단위 :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6년	100.0	17.5	23.2	24.7	17.3	10.5	3.6	1.3	0.7	0.4	0.8
2024년	100.0	12.6	25.7	27.0	16.8	7.9	4.8	2.6	1.2	0.2	1.1

월평균 가구소비 - (2)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

(단위 : %)

구분	계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경조사비	기타
(1) 종합												
2026년	100.0	44.9	9.6	10.0	4.3	1.3	15.5	6.3	1.2	2.1	4.0	1.0
2024년	100.0	44.5	8.3	6.9	4.1	1.1	18.3	6.4	2.3	2.4	3.7	1.9
(2) 1순위												
2026년	100.0	50.2	9.6	8.7	2.3	1.2	16.1	7.1	0.7	1.0	2.4	0.7
2024년	100.0	51.1	8.9	4.3	2.7	0.5	19.1	6.3	2.3	1.2	1.9	1.6
(3) 2순위												
2026년	100.0	28.8	9.6	13.8	10.6	1.5	13.5	4.1	2.5	5.3	8.7	1.6
2024년	100.0	24.9	6.6	14.8	8.3	3.1	15.9	6.7	2.0	6.0	8.9	2.8

3 - 4. 청년 지원 정책

장성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알선

· 장성 군민 10명 중 2명은 취업 상담·알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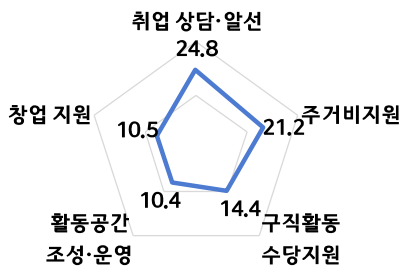
- 전라남도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비 지원'(21.2%),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14.4%), '창업 지원'(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 상담·알선이 가장 높은 응답

-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에 대한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15~29세(28.3%), 50~59세(27.7%), 65세 이상(24.6%), 60세 이상(24.1%), 40~49세(23.7%), 30~39세(1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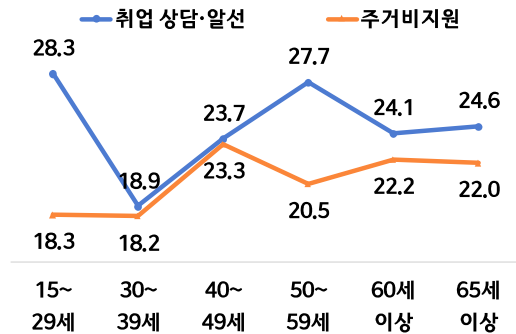
<< 청년 지원 정책(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청년 지원 정책(상위 2개 항목) >>

(단위 : %)



청년 지원 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활동공간 조성·운영	구직활동 수당 지원	취업 상담·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 지원	지자체 적용 통장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정책 홍보	출산·양육 지원	건강 상담 지원	기타
2026년	100.0	10.4	14.4	24.8	10.5	21.2	4.2	2.8	1.7	8.9	0.7	0.3
2024년	100.0	11.8	12.3	27.8	9.4	17.3	2.9	4.2	1.1	11.8	1.1	0.3
< 연 령 별 >												
15~29세	100.0	15.6	16.3	28.3	10.1	18.3	2.1	3.8	2.7	2.8	0.0	0.0
30~39세	100.0	6.9	14.4	18.9	9.2	18.2	7.6	2.6	3.3	14.7	1.8	2.4
40~49세	100.0	12.0	12.3	23.7	10.7	23.3	4.2	1.0	2.4	9.0	0.8	0.5
50~59세	100.0	9.8	14.0	27.7	8.9	20.5	4.6	5.2	1.1	7.2	1.0	0.0
60세 이상	100.0	9.5	14.6	24.1	11.4	22.2	4.0	2.1	1.2	10.2	0.6	0.0
65세 이상	100.0	9.9	14.8	24.6	11.0	22.0	4.2	2.0	0.7	10.0	0.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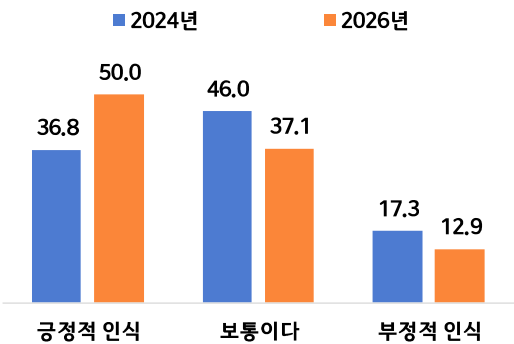
3 - 5.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장성 군민 10명 중 5명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 인식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군민 증가**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0.0%로 나타났고, 2024년(36.8%) 대비 13.2%p 증가함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2.9%로 나타났고, 2024년(17.3%) 대비 4.4%p 감소함
- **장성 군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
 - 가장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한국어 교육’이 ‘보통 이상’의 인식에서 각각 ‘매우 긍정적이다’ 38.4%, ‘긍정적이다’ 53.5%, ‘보통이다’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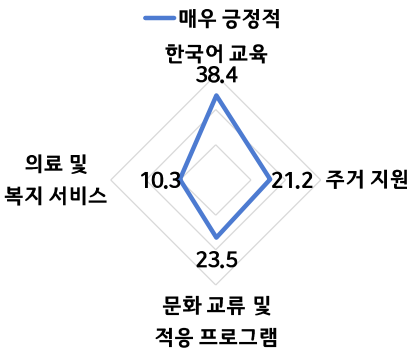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단위 : %)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1)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긍정적 인식	매우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 인식	매우 부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2026년	100.0	50.0	12.7	37.4	37.1	12.9	12.0	0.9
2024년	100.0	36.8	9.9	26.9	46.0	17.3	14.5	2.7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2)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단위 : %)

구 분	계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및 적응 프로그램	주거 지원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법률 상담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기타
(1) 매우 긍정적이다								
2026년	100.0	38.4	21.2	23.5	10.3	3.9	2.7	0.0
2024년	100.0	60.7	18.3	12.2	6.3	0.9	1.6	0.0
(2) 긍정적이다								
2026년	100.0	53.5	22.1	10.2	9.8	0.9	3.5	0.0
2024년	100.0	39.6	22.5	16.0	14.9	3.9	2.3	0.9
(3) 보통이다								
2026년	100.0	47.9	27.5	12.2	5.7	1.1	4.9	0.5
2024년	100.0	46.5	23.5	12.6	13.0	2.1	2.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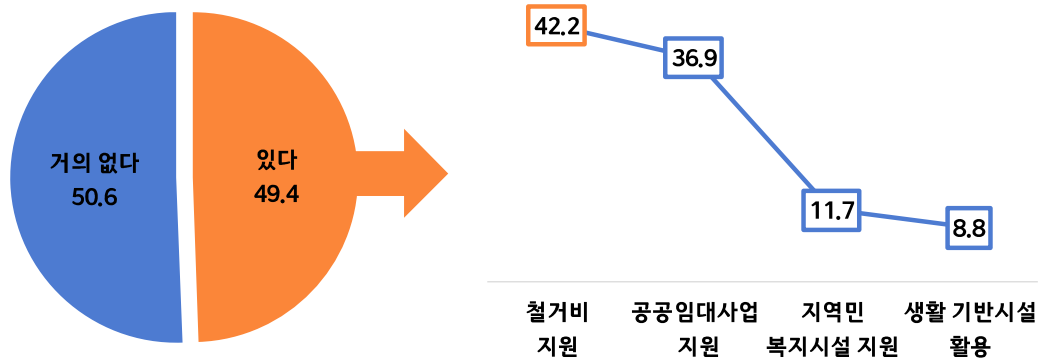
3 - 6. 빈집 활용방안

빈집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성 군민 2024년 대비 증가

- 장성 군민 10명 중 5명은 집 주변에 빈집이 있다고 응답
 - ‘빈집이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0.6%로 2024년(58.9%) 대비 8.3%p 감소함
 - 빈집의 방치 정도에 대해 ‘빈집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1.2%로 2024년(12.1%) 대비 9.1%p 증가함
- 장성 군민들이 원하는 빈집 처리 방안은 철거비 지원
 - 빈집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가 42.2%로 가장 높고 ‘재활용 가능한 빈집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36.9%), ‘주민 휴식공간, 공원 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빈집의 수와 빈집 처리 또는 활용방안(기타 제외) >>

(단위 : %)



빈집 활용방안 - (1) 빈집 수와 방치정도

(단위 : %)

구 분	계	빈집이 거의 없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2 0 2 6 년	100.0	50.6	18.7	24.3	2.5	3.9
2 0 2 4 년	100.0	58.9	10.7	21.4	1.4	7.5

빈집 활용방안 - (2) 빈집 처리 또는 활용방안

(단위 : %)

구 분	계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재활용 가능한 빈집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주민 휴식공간,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	공용 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활용	기타
2 0 2 6 년	100.0	42.2	36.9	11.7	8.8	0.4
2 0 2 4 년	100.0	45.4	26.8	15.1	9.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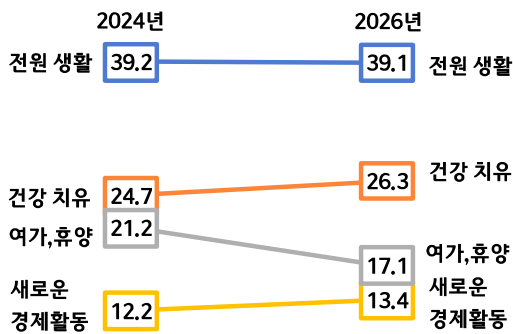
3 - 7.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귀농어·귀촌의 가장 큰 이유는 전원생활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귀농어·귀촌의 이유가 전원생활이라고 응답
 - 귀농어·귀촌 이유에 대해 ‘전원생활’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3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은퇴 후 여가 및 휴양’(26.3%),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17.1%), ‘건강 치유’(1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은 정착자금융자 지원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귀농어·귀촌에 대한 정착자금융자 지원’이 36.5%로 가장 높고,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24.3%),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2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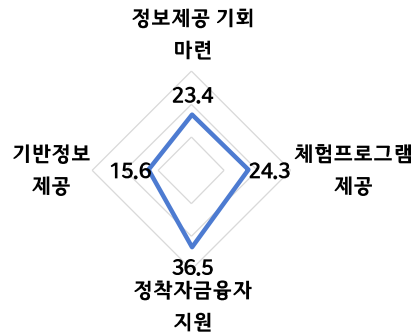
<< 귀농어·귀촌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귀농어·귀촌 지원정책(기타 제외) >>

(단위 : %)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1) 귀농어·귀촌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전원생활	건강 치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집안의 가업 승계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이용	기타
2026년	100.0	39.1	13.4	26.3	17.1	1.5	2.5	0.2
2024년	100.0	39.2	12.2	24.7	21.2	2.0	0.5	0.2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2) 귀농어·귀촌 지원정책

(단위 : %)

구 분	계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	귀농어·귀촌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 지원	귀농어·귀촌 지역에 대한 기반정보 제공	기타
2026년	100.0	23.4	24.3	36.5	15.6	0.2
2024년	100.0	22.0	30.1	31.7	15.6	0.5

3 - 8. 쓰레기 처리 만족도

장성군 쓰레기 처리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에 3.7점 이상

· 장성 군민 10명 중 5명은 쓰레기 처리에 만족

- 쓰레기 처리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활폐기물 50.8%, 음식물 쓰레기 51.5%, 재활용 쓰레기 49.1%로 나타남
- 쓰레기 처리 만족도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생활폐기물 3.8점, 음식물 쓰레기 3.8점, 재활용 쓰레기 3.7점으로 나타남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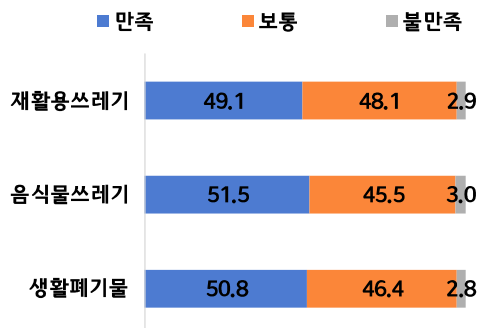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중부권이 55.1%로 가장 높고, 서부권 54.2%, 북부권 52.7%, 광주인근권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26.1%, 31.9%),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47.6%)
- 광주인근권에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불만족 이유로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86.1%)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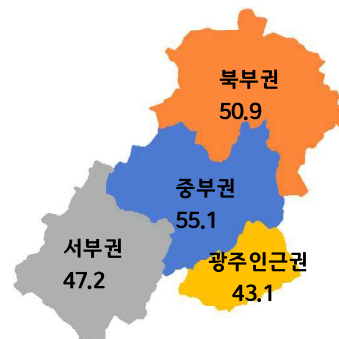
<< 쓰레기 처리 만족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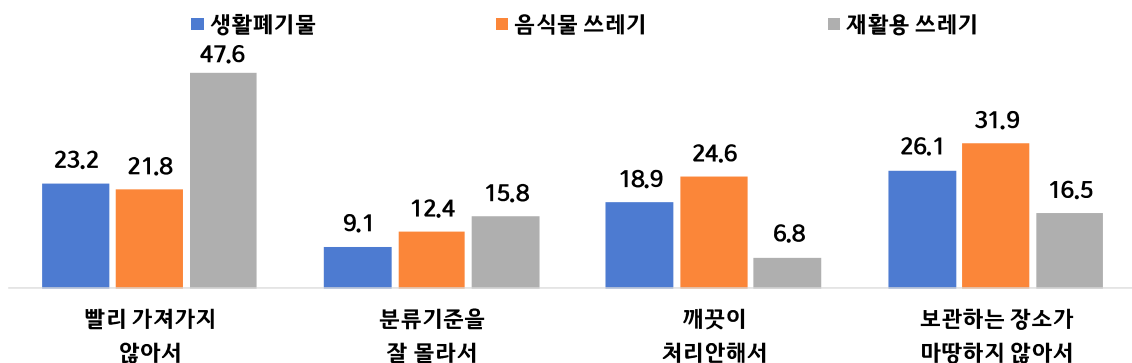
<< 지역별 생활폐기물 처리 만족도(만족) >>

(단위 : %)



<<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쓰레기 처리 만족도

(단위 : %)

구 분	평균 만족도	계	해당 있음										해당 없음
				소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생활폐기물													
2 0 2 6 년	3.8	100.0	99.8	100.0	50.8	17.7	33.1	46.4	2.8	1.5	1.3	0.2	
2 0 2 4 년	3.9	100.0	99.8	100.0	66.1	32.1	34.1	28.7	5.2	3.5	1.6	0.2	
〈 지 역 별 〉													
중 부 권	3.8	100.0	100.0	100.0	55.1	25.2	29.9	43.4	1.5	1.5	0.0	0.0	
북 부 권	3.7	100.0	100.0	100.0	50.9	12.6	38.2	39.7	9.4	5.9	3.5	0.0	
서 부 권	3.6	100.0	99.2	100.0	47.2	7.4	39.8	51.7	1.1	0.0	1.1	0.8	
광 주 인 근 권	3.9	100.0	100.0	100.0	43.1	16.5	26.7	53.7	3.2	0.0	3.2	0.0	
(2) 음식물 쓰레기													
2 0 2 6 년	3.8	100.0	93.9	100.0	51.5	18.2	33.3	45.5	3.0	2.5	0.5	6.1	
2 0 2 4 년	3.9	100.0	95.7	100.0	63.4	31.6	31.9	31.2	5.3	2.5	2.8	4.3	
〈 지 역 별 〉													
중 부 권	3.8	100.0	100.0	100.0	55.1	27.2	27.9	40.9	4.0	4.0	0.0	0.0	
북 부 권	3.8	100.0	98.8	100.0	52.7	9.7	43.1	43.7	3.6	3.6	0.0	1.2	
서 부 권	3.6	100.0	90.4	100.0	54.2	9.0	45.3	45.8	0.0	0.0	0.0	9.6	
광 주 인 근 권	3.8	100.0	75.0	100.0	28.6	9.9	18.7	67.1	4.3	0.0	4.3	25.0	
(3) 재활용 쓰레기													
2 0 2 6 년	3.7	100.0	99.8	100.0	49.1	17.1	32.0	48.1	2.9	1.9	1.0	0.2	
2 0 2 4 년	3.9	100.0	99.7	100.0	66.4	32.9	33.5	28.4	5.1	3.3	1.8	0.3	
〈 지 역 별 〉													
중 부 권	3.8	100.0	100.0	100.0	53.8	25.9	27.9	44.7	1.5	1.5	0.0	0.0	
북 부 권	3.8	100.0	100.0	100.0	51.0	9.5	41.5	40.8	8.2	4.6	3.5	0.0	
서 부 권	3.7	100.0	99.2	100.0	50.1	8.2	42.0	49.9	0.0	0.0	0.0	0.8	
광 주 인 근 권	3.5	100.0	100.0	100.0	30.1	11.8	18.3	63.1	6.7	3.5	3.2	0.0	

쓰레기 처리 만족도(불만족 이유)

(단위 :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1) 생활폐기물								
2 0 2 6 년	100.0	23.2	9.1	18.9	10.2	26.1	5.8	6.7
2 0 2 4 년	100.0	30.4	6.1	12.0	2.5	22.3	13.7	13.0
(2) 음식물 쓰레기								
2 0 2 6 년	100.0	21.8	12.4	24.6	0.0	31.9	3.7	5.7
2 0 2 4 년	100.0	27.5	7.4	6.6	0.0	41.2	6.3	10.9
(3) 재활용 쓰레기								
2 0 2 6 년	100.0	47.6	15.8	6.8	0.0	16.5	8.4	5.0
2 0 2 4 년	100.0	29.4	16.9	18.6	0.0	17.5	5.2	12.5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26.8	34.4	8.9	0.0	0.0	29.9	0.0
북 부 권	100.0	5.4	19.2	21.0	0.0	17.7	4.7	31.9
서 부 권	100.0	6.5	26.5	6.4	0.0	53.9	6.8	0.0
광 주 인 근 권	100.0	86.1	1.6	2.0	0.0	8.4	0.0	1.9

3 - 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보육비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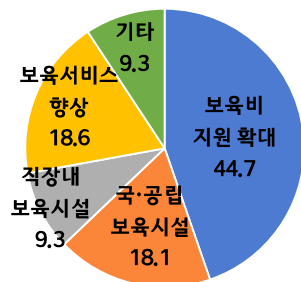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은 44.7%로 2024년(37.4%) 대비 7.3%p 증가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44.7%),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18.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8.1%),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비 지원 확대’(44.7%)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8.1%)에 대한 응답비율이 2024년(37.4%, 14.6%) 대비 각각 7.3%p, 3.5%p 증가함

·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42.9%, 여자 46.7%로 여자가 남자 대비 3.8%p 높게 나타남
- 두번째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남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20.0%)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18.4%)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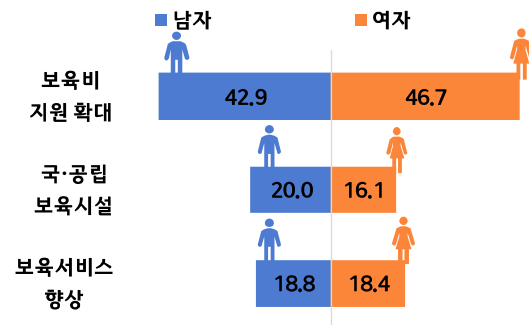
<<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상위 3개 항목) >>

(단위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구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026년	100.0	44.7	18.1	9.3	18.6	4.4	4.9	0.0
2024년	100.0	37.4	14.6	11.3	21.4	8.2	7.1	0.0
< 성 별 >								
남자	100.0	42.9	20.0	10.0	18.8	4.4	4.0	0.0
여자	100.0	46.7	16.1	8.6	18.4	4.4	5.8	0.0

3 - 10.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장성 군민이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

· 장성 군민들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는 부부 둘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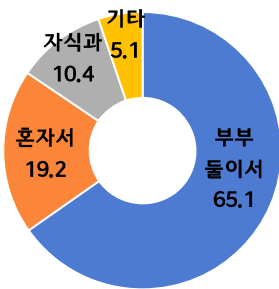
- 장성 군민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는 ‘부부 둘이서’가 65.1%로 2024년(61.9%) 대비 3.2%p 증가함
- 군민들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는 ‘부부 둘이서’(65.1%), ‘혼자서’(19.2%), ‘자식 또는 배우자와 함께’(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가 ‘부부 둘이서’와 ‘혼자서’인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로 ‘자택’이 각각 68.1%,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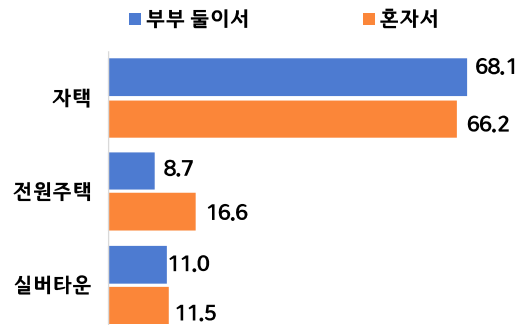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상위 3개 항목) >>

(단위 : %)



<<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상위 3개 항목) >>

(단위 :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1)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단위 : %)

구 분	계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와 함께	부부 둘이서	혼자서	친인척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기타
2 0 2 6 년	100.0	10.4	65.1	19.2	0.9	3.1	1.1	0.2
2 0 2 4 년	100.0	13.6	61.9	20.1	0.2	2.0	2.1	0.2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2)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

(단위 : %)

구 분	계	자택 (현재 집)	전원주택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실버타운 (노인 전용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1) 부부 둘이서								
2 0 2 6 년	100.0	68.1	8.7	6.0	5.8	11.0	0.4	0.0
2 0 2 4 년	100.0	66.8	15.9	2.1	2.0	12.5	0.5	0.2
(2) 혼자서								
2 0 2 6 년	100.0	66.2	16.6	2.3	3.1	11.5	0.3	0.0
2 0 2 4 년	100.0	57.7	8.7	8.9	3.1	20.3	0.3	1.0

3 - 11. 여가 활동

장성 군민이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및 DVD 시청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이 현재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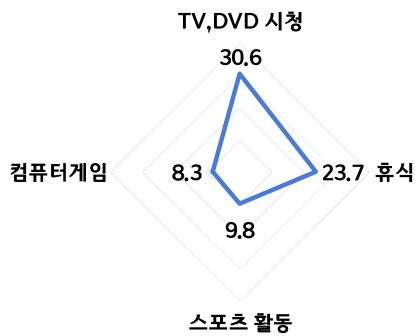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및 DVD 시청'(30.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휴식'(23.7%),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9.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TV 및 DVD 시청'(30.6%)은 2024년(32.9%) 대비 2.3%p 감소함

• 장성 군민 10명 중 2명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14.2%), '휴식'(12.0%), '취미, 자기개발'(1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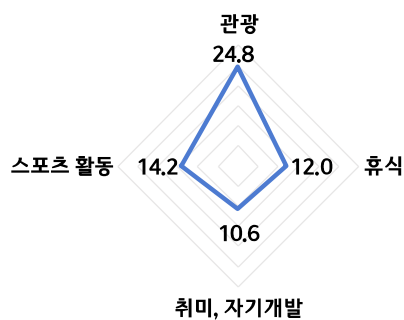
<< 주로 하는 여가 활동(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여가 활동

(단위 : %)

구 분	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 개발	휴식	사회 활동 및 기타 활동	기타
(1)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 (다중 응답)												
2026년	100.0	30.6	5.7	2.6	3.2	9.8	3.4	8.3	5.1	23.7	7.3	0.3
2024년	100.0	32.9	4.3	1.6	4.8	8.9	4.7	6.4	3.8	25.3	6.4	1.0
< 성 별 >												
남 자	100.0	29.1	5.1	2.2	4.7	10.7	3.2	11.8	5.1	21.3	6.5	0.2
여 자	100.0	32.2	6.4	2.9	1.5	8.9	3.5	4.6	5.0	26.3	8.2	0.4
(2)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다중 응답)												
2026년	100.0	8.1	7.7	3.7	5.7	14.2	24.8	3.6	10.6	12.0	9.4	0.1
2024년	100.0	13.9	7.9	3.4	3.6	12.0	21.0	3.8	10.4	15.4	8.3	0.3
< 성 별 >												
남 자	100.0	6.6	6.7	3.6	8.0	16.7	25.1	4.8	10.2	10.5	7.8	0.0
여 자	100.0	9.7	8.8	3.8	3.1	11.4	24.6	2.3	11.1	13.6	11.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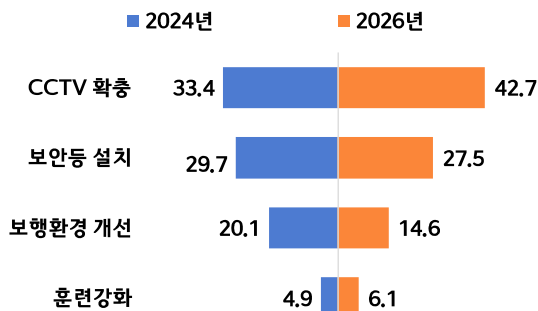
3 - 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CCTV 확충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7%로 2024년(33.4%) 대비 9.3%p 증가함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42.7%),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 지역해소’(27.5%), ‘보행환경 개선’(14.6%),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강화’(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보인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27.5%)는 2024년(29.7%) 대비 2.2%p 감소함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여자가 남자보다 방범용 CCTV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에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38.3%, 여자는 47.3%로 여자가 남자보다 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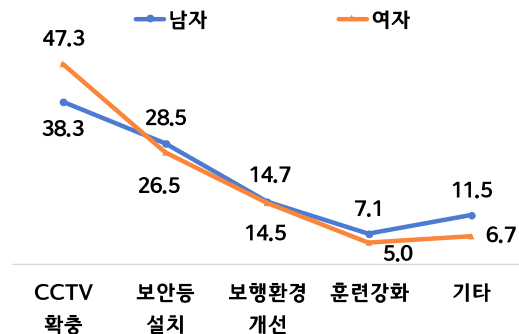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

구 분	계	방범용 CCTV 확충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	보행환경 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 강화	어린이 등학교 주변 안전 지도, 자율 순찰 강화	메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 상승 홍보, 교육	기타
2 0 2 6 년	100.0	42.7	27.5	14.6	6.1	3.8	4.4	1.0
2 0 2 4 년	100.0	33.4	29.7	20.1	4.9	3.7	6.7	1.7
< 성 별 >								
남 자	100.0	38.3	28.5	14.7	7.1	4.9	5.8	0.8
여 자	100.0	47.3	26.5	14.5	5.0	2.6	2.9	1.2

3- 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군민 10명 중 5명은 장성 군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짐

· 장성 군민 과반수는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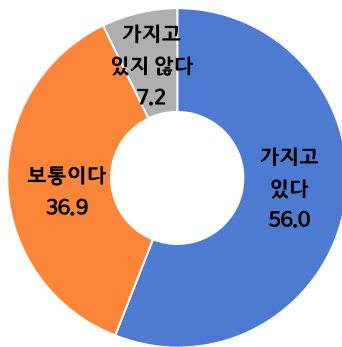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해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6.0%로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7.2%로 2024년 (10.5%) 대비 3.3%p 감소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은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인근권이 67.0%로 가장 높았고 서부권(64.5%), 북부권(61.3%), 중부권(4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부권이 2.2%로 가장 낮고, 광주인근권(4.0%), 북부권(7.3%), 중부권(10.7%) 순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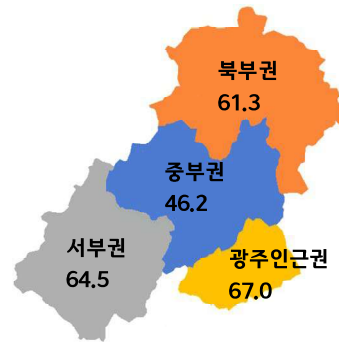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단위 : %)



◀ 지역별 소속감 및 자부심(가지고 있다) ▶

(단위 :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

구 분	계	가지고 있다			보통이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2 0 2 6 년	100.0	56.0	15.5	40.5	36.9	7.2	6.1	1.1
2 0 2 4 년	100.0	56.1	18.1	38.0	33.5	10.5	8.8	1.7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46.2	12.1	34.1	43.0	10.7	9.6	1.1
북 부 권	100.0	61.3	25.9	35.4	31.4	7.3	6.6	0.7
서 부 권	100.0	64.5	10.5	54.0	33.3	2.2	1.9	0.3
광 주 인 근 권	100.0	67.0	23.5	43.5	29.0	4.0	1.8	2.3

4. 장성군 특성 항목

- 4 - 1. 인구증가 정책
- 4 - 2. 거주지 거주 사유
- 4 - 3. 생활여건 변화 기대
- 4 - 4.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 4 - 5. 일자리 창출 활성화
- 4 - 6. 물품 구입 지역
- 4 - 7.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 4 - 8. 관광명소
- 4 - 9. 지역 특화작목 육성
- 4 - 10.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 4 - 11.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 4 - 12. 청년 지원 정책
- 4 - 13. 도시경관 정비
- 4 - 14. 평생교육
- 4 - 15.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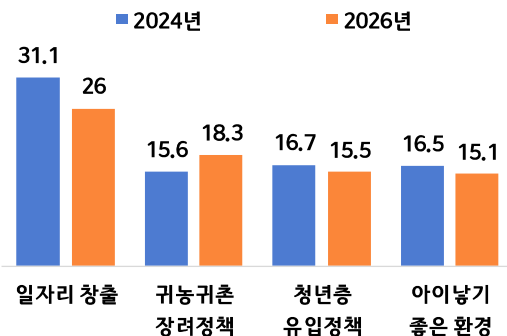
4 - 1. 인구증가 정책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인구증가 정책은 일자리 창출

- 10명 중 3명은 우선 추진 인구증가 정책으로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우선 추진 인구증가 정책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6.0%)로 나타났고, ‘귀농귀촌 장려 정책’(18.3%), ‘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위한 정책’(15.5%),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6.0%)의 응답 비율은 2024년(31.1%) 대비 5.1%p 감소했고, ‘귀농귀촌 장려정책’(18.3%)의 응답 비율은 2024년(15.6%) 대비 2.7%p 증가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우선 추진 인구정책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남
 - 남자의 경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7.6%), ‘귀농귀촌 장려 정책’(17.3%), ‘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위한 정책’(1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자의 경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4.4%), ‘귀농귀촌 장려정책’(19.4%),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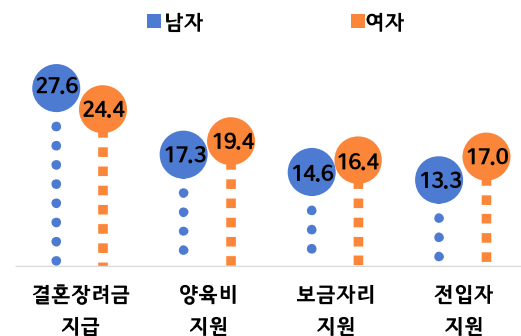
<< 가장 좋은 인구증가 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가장 좋은 인구증가 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인구증가 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장려 정책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위한 정책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환경 개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활성화	기타
2026년	100.0	26.0	18.3	10.3	15.5	15.1	7.6	3.4	3.7	0.1
2024년	100.0	31.1	15.6	8.9	16.7	16.5	5.6	2.1	3.2	0.3
< 성 별 >										
남 자	100.0	27.6	17.3	10.6	14.6	13.3	7.6	4.7	4.1	0.1
여 자	100.0	24.4	19.4	9.9	16.4	17.0	7.7	2.0	3.3	0.0

4 - 2. 거주지 거주 사유

장성군에 거주하는 이유는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 현 거주지에 거주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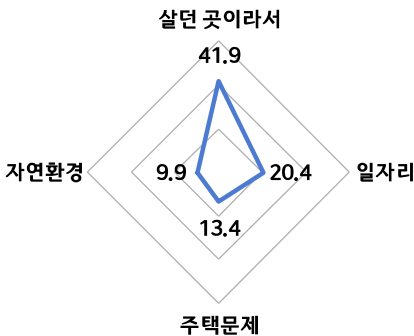
- 장성군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 및 일자리'(20.4%), '주택문제'(13.4%), '공기·녹지 등 자연환경'(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군에 거주하는 이유로 2024년 대비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교육환경'(5.6%)으로 2.3%p 증가함

· 현 거주지 거주 사유는 지역별 차이를 보임

-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를 제외하고, 현 거주지 거주 사유로 중부권과 서부권의 경우에는 '직장 및 일자리'(28.9%, 17.0%),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의 경우 '공기·녹지 등 자연환경'(11.7%, 21.9%)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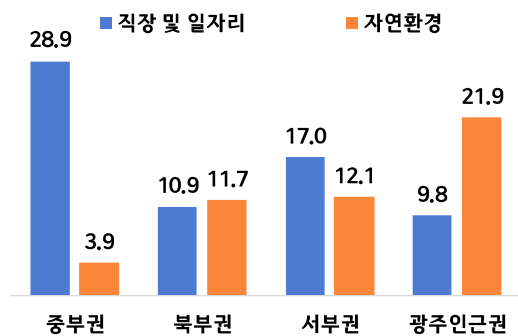
<< 거주지 거주 사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거주지 거주 사유(2순위, 3순위) >>

(단위 : %)



거주지 거주 사유

(단위 : %)

구 분	계	주택문제	교육환경	직장 및 일자리	공기·녹지 등 자연환경	문화·생활 편의시설	가족과 가까이 살기위해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	기타
2 0 2 6 년	100.0	13.4	5.6	20.4	9.9	1.3	7.5	41.9	0.1
2 0 2 4 년	100.0	14.1	3.3	20.3	10.2	1.1	6.4	43.9	0.6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8.9	6.9	28.9	3.9	2.4	7.8	31.1	0.0
북 부 권	100.0	9.1	6.4	10.9	11.7	1.2	6.6	54.2	0.0
서 부 권	100.0	5.7	3.3	17.0	12.1	0.3	7.7	53.9	0.0
광 주 인 근 권	100.0	12.5	4.3	9.8	21.9	0.0	7.4	43.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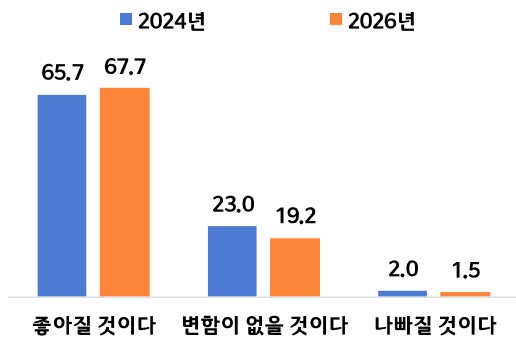
4 - 3. 생활여건 변화 기대

군민 10명 중 7명은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

-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군민의 비율은 2024년 대비 증가함
 - 5년 후 장성군의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7.7%로 2024년(65.7%) 대비 2.0%p 증가함
 - 생활여건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로 2024년(2.0%) 대비 0.5%p 감소함
- 연령별 생활 여건 변화 기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함
 - 연령별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75.6%), 50~59세(68.8%), 40~49세(62.2%) 순으로 생활여건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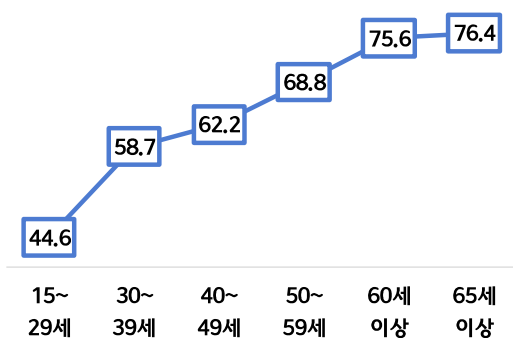
<< 생활여건 변화 기대(잘 모르겠다 제외) >>

(단위 : %)



<< 연령별 생활여건 변화 기대(좋아질 것이다) >>

(단위 : %)



생활여건 변화 기대

(단위 : %)

구분	계	좋아질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2 0 2 6 년	100.0	67.7	12.0	55.6	19.2	1.5	1.2	0.3	11.7
2 0 2 4 년	100.0	65.7	9.1	56.6	23.0	2.0	1.8	0.2	9.4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4.6	8.1	36.6	19.8	1.6	1.6	0.0	33.9
3 0 ~ 3 9 세	100.0	58.7	8.0	50.8	21.3	5.8	5.8	0.0	14.2
4 0 ~ 4 9 세	100.0	62.2	9.0	53.2	21.9	0.6	0.6	0.0	15.4
5 0 ~ 5 9 세	100.0	68.8	11.3	57.5	20.3	2.0	1.1	0.9	8.9
6 0 세 이 상	100.0	75.6	14.7	60.9	17.6	0.8	0.5	0.4	6.0
6 5 세 이 상	100.0	76.4	15.9	60.5	17.1	0.7	0.6	0.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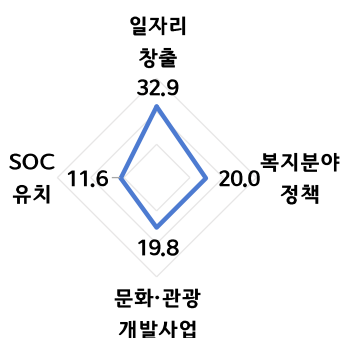
4 - 4.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장성 군민이 가장 원하는 지역발전 추진정책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 추진정책이라고 응답
 - 장성 군민은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32.9%)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복지분야 정책'(20.0%), '문화·관광 개발사업'(19.8%), '도로, 항만, 철도 등 SOC 유치'(1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에 대한 응답은 다르게 나타남
 -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높은 응답으로는 북부권과 서부권은 각각 23.3%, 24.8%로 '복지분야 정책'이, 중부권과 광주인근권에서는 각각 24.5%, 20.1%로 '문화·관광 개발사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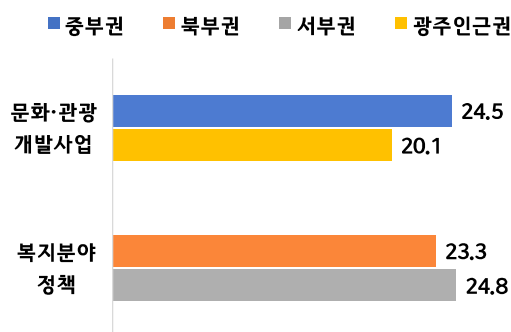
<<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2순위) >>

(단위 : %)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도로, 항만, 철도 등 SOC 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복지분야 정책	문화·관광 개발사업	도시개발 관련 정책	농축산업 분야 정책	특색 있는 조성 지원 확대	기타
2 0 2 6 년	100.0	11.6	32.9	20.0	19.8	7.4	4.7	3.6	0.0
2 0 2 4 년	100.0	9.6	32.4	18.9	19.8	8.8	4.9	5.3	0.2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9.8	32.8	18.1	24.5	7.4	3.1	4.3	0.0
북 부 권	100.0	10.5	33.8	23.3	17.7	4.2	8.4	2.2	0.0
서 부 권	100.0	16.2	30.9	24.8	11.3	7.5	5.4	3.9	0.0
광 주 인 근 권	100.0	11.3	35.2	16.4	20.1	9.6	4.9	2.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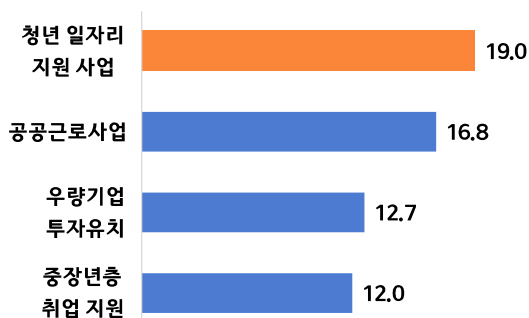
4 - 5. 일자리 창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장성 군민 10명 중 2명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장성 군민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투자 분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19.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19.0%),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16.8%), ‘우량기업 투자유치’(12.7%),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1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은 다르게 나타남**
 -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15~59세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비율이 16.7% 이상으로 가장 높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율이 21.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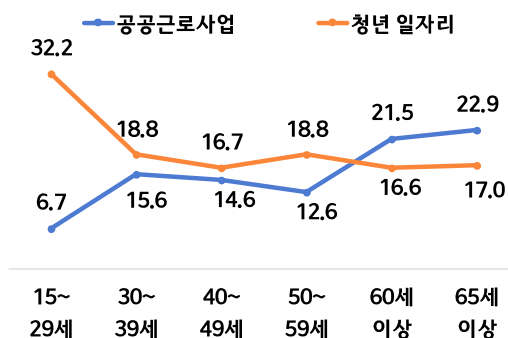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상위 2개 항목) >>

(단위 : %)



일자리 창출 활성화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취업 교육훈련	우량기업 투자유치	각종 기업 지원정책	기타
2 0 2 6 년	100.0	16.8	8.5	8.7	9.1	19.0	12.0	8.0	12.7	4.9	0.2
2 0 2 4 년	100.0	19.8	11.1	9.6	8.2	21.9	8.8	7.4	11.2	1.8	0.2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6.7	9.9	6.1	5.7	32.2	6.9	17.6	9.0	6.0	0.0
3 0 ~ 3 9 세	100.0	15.6	12.0	8.5	3.8	18.8	6.2	11.2	16.4	6.1	1.3
4 0 ~ 4 9 세	100.0	14.6	9.9	9.1	11.8	16.7	15.6	6.3	11.4	4.5	0.0
5 0 ~ 5 9 세	100.0	12.6	7.0	6.4	11.9	18.8	18.5	7.1	11.9	5.5	0.3
6 0 세 이 상	100.0	21.5	7.9	10.1	9.0	16.6	10.9	5.9	13.7	4.3	0.1
6 5 세 이 상	100.0	22.9	8.3	9.6	8.7	17.0	10.2	5.9	13.3	3.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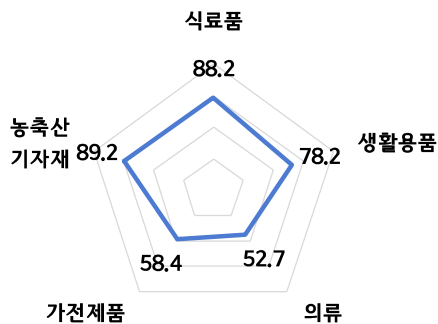
4 - 6. 물품 구입 지역

장성 군민 과반수 이상은 모든 물품을 장성관내에서 구입

- 장성 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식료품, 생활용품, 농축산기자재를 장성관내에서 구입
 - ‘장성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군민의 비율은 식료품(88.2%), 생활용품(78.2%), 농축산기자재(89.2%)로 나타남
 - 의류와 가전제품을 ‘장성관내’에서 구입한 군민은 각각 52.7%, 58.4%로 2024년(52.6%, 56.6%) 대비 0.1%p, 1.8%p 증가함
- 군민이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 장성 군민이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의 응답 비율이 각각 식료품(36.5%), 생활용품(41.1%), 의류(44.7%), 가전제품(44.6%), 농축산기자재(4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의 경우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중부권과 서부권은 각각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46.9%, 43.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의 경우 각각 56.3%, 44.8%로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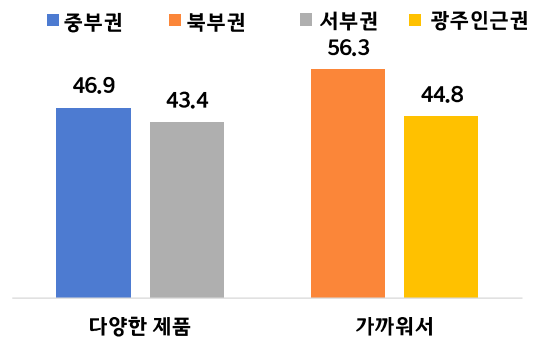
◀◀ 물품 구입 지역(장성관내)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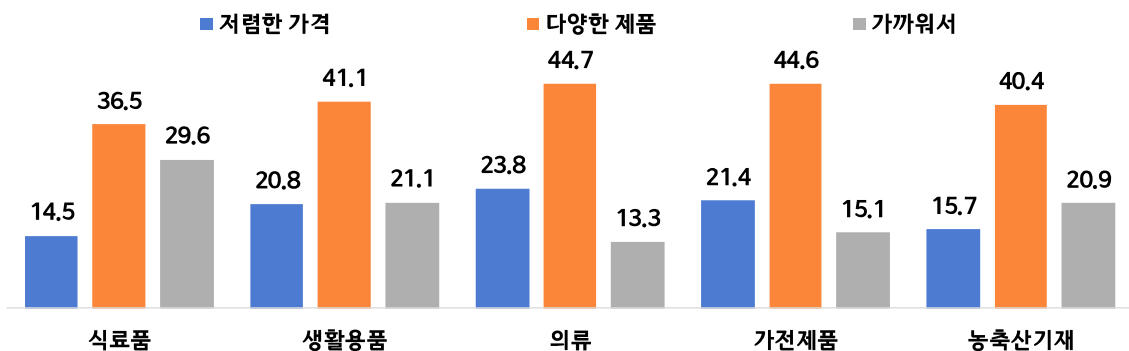
◀◀ 지역별 타 지역에서 물품 구입 이유(식료품) ▶▶

(단위 : %)



◀◀ 타 지역에서 물품 구입하는 이유(상위 3개 항목) ▶▶

(단위 : %)



물품 구입 지역 - 물품을 주로 구매하는 지역

(단위 : %)

구 분	계	장성관내	광주	기타 도내 시군
(1) 식료품				
2 0 2 6 년	100.0	88.2	9.3	2.5
2 0 2 4 년	100.0	88.5	9.6	1.8
(2) 생활용품				
2 0 2 6 년	100.0	78.2	16.4	5.5
2 0 2 4 년	100.0	79.2	15.9	5.0
(3) 의류				
2 0 2 6 년	100.0	52.7	39.6	7.7
2 0 2 4 년	100.0	52.6	39.2	8.2
(4) 가전제품				
2 0 2 6 년	100.0	58.4	34.6	7.0
2 0 2 4 년	100.0	56.6	36.7	6.7
(5) 농축산기자재				
2 0 2 6 년	100.0	89.2	8.1	2.7
2 0 2 4 년	100.0	87.5	9.6	2.8

물품 구입 지역 -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제품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해서	주차장등 편의시설이 좋아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종업원이 친절해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기타
(6)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식료품)								
2 0 2 6 년	100.0	9.6	14.5	5.7	36.5	0.4	29.6	3.8
2 0 2 4 년	100.0	5.4	22.9	5.6	34.2	0.3	29.9	1.7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5.1	18.1	10.0	46.9	0.0	9.7	0.0
북 부 권	100.0	7.2	10.3	1.4	18.6	0.0	56.3	6.1
서 부 권	100.0	17.2	23.4	0.0	43.4	0.0	1.5	14.5
광 주 인 근 권	100.0	4.0	9.9	6.6	32.7	1.0	44.8	1.0
(7)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생활용품)								
2 0 2 6 년	100.0	6.7	20.8	7.0	41.1	1.6	21.1	1.7
2 0 2 4 년	100.0	8.4	22.2	9.1	37.4	1.0	18.0	3.9
(8)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의류)								
2 0 2 6 년	100.0	11.6	23.8	4.6	44.7	0.8	13.3	1.4
2 0 2 4 년	100.0	10.9	21.8	6.7	45.2	0.6	11.8	2.9
(9)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가전제품)								
2 0 2 6 년	100.0	11.4	21.4	5.1	44.6	0.9	15.1	1.5
2 0 2 4 년	100.0	9.4	24.1	6.7	43.8	0.8	12.1	3.0
(10)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농축산기자재)								
2 0 2 6 년	100.0	11.3	15.7	6.5	40.4	0.9	20.9	4.2
2 0 2 4 년	100.0	6.5	19.6	5.5	37.1	1.6	26.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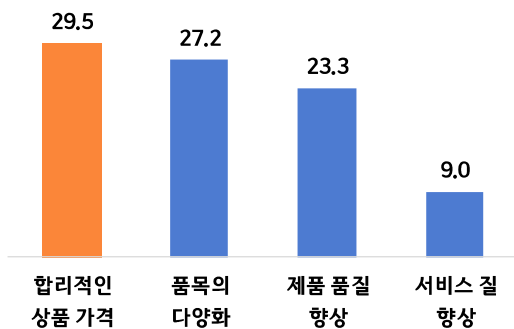
4 - 7.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은 합리적인 상품 가격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은 합리적인 상품 가격이라고 응답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합리적인 상품 가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품목의 다양화'(27.2%), '제품 품질 향상'(23.3%), '서비스 질 향상'(9.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합리적인 상품 가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5%로 2024년(31.9%) 대비 2.4%p 감소함
 - '제품 품질 향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3.3%로 2024년(20.6%) 대비 2.7%p 증가함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15~29세, 50세 이상은 '합리적인 상품 가격'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30~49세는 '품목의 다양화'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제품 품질 향상' 응답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30~39세(13.5%)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15~29세(27.1%)는 13.6%p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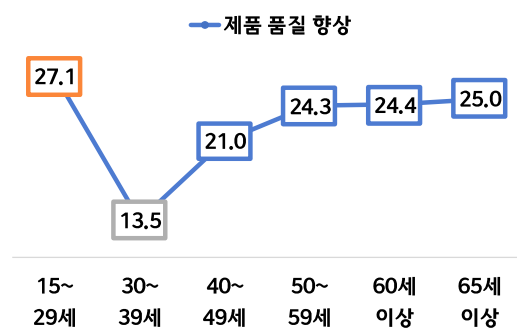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

(단위 :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품목의 다양화	제품 품질 향상	합리적인 상품 가격	서비스 질 향상	직매장 시설 개선	판매처 확대	직매장 홍보	기타
2 0 2 6 년	100.0	27.2	23.3	29.5	9.0	3.4	5.6	1.7	0.3
2 0 2 4 년	100.0	27.4	20.6	31.9	10.0	2.7	5.0	2.1	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5.7	27.1	27.9	7.4	6.0	2.9	2.9	0.0
3 0 ~ 3 9 세	100.0	29.9	13.5	28.9	8.2	3.7	9.1	4.5	2.2
4 0 ~ 4 9 세	100.0	27.0	21.0	26.8	11.8	2.9	8.3	2.1	0.0
5 0 ~ 5 9 세	100.0	27.2	24.3	31.4	8.3	3.0	4.7	0.8	0.3
6 0 세 이상	100.0	27.1	24.4	29.8	9.1	3.1	5.2	1.2	0.2
6 5 세 이상	100.0	26.4	25.0	29.0	9.1	3.2	6.1	1.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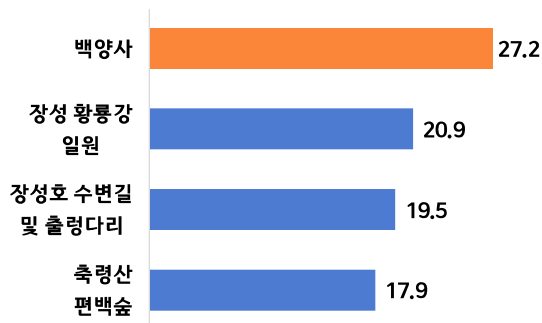
4 - 8. 관광명소

장성 군민이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는 백양사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백양사라고 응답
 -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백양사'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성 황룡강 일원'(20.9%),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19.5%), '축령산 편백숲'(1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백양사'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4년(23.6%) 대비 3.6%p 증가함
 - '장성 황룡강 일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4년(18.3%) 대비 2.6%p 증가하였으며,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 2024년 4순위에서 2026년 2순위로 올라옴
- 광주인근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백양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백양사를 선택한 비율은 북부권이 36.5%로 가장 높았고, 서부권(32.7%), 중부권(23.5%), 광주인근권(2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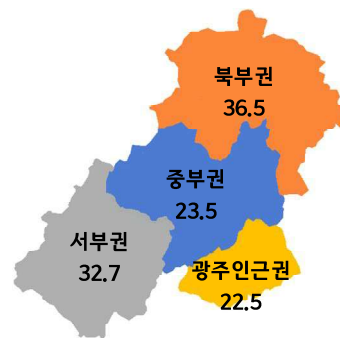
<< 관광명소 (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관광명소(백양사) >>

(단위 : %)



관광명소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세계유산 필암서원	백양사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	장성 황룡강 일원	축령산 편백숲	상무 평화 공원	홍길동 테마 파크	임권택 시네마 테크	평림댐 장미 공원	남창 계곡	입암 산성	금곡 영화촌
2 0 2 6 년	100.0	8.7	27.2	19.5	20.9	17.9	0.6	1.6	0.4	1.4	1.7	0.1	0.1
2 0 2 4 년	100.0	9.1	23.6	21.9	18.3	19.7	0.5	2.6	0.6	1.0	2.1	0.4	0.0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1.6	23.5	17.4	22.9	19.7	0.3	1.6	0.5	0.2	2.0	0.2	0.1
북 부 권	100.0	10.2	36.5	21.1	16.6	10.8	0.4	1.8	0.5	0.2	2.0	0.0	0.0
서 부 권	100.0	4.5	32.7	20.5	15.1	18.2	1.8	1.3	0.0	4.7	1.0	0.0	0.2
광 주 인 근 권	100.0	4.9	22.5	22.6	26.4	18.2	0.0	1.6	0.5	1.7	1.4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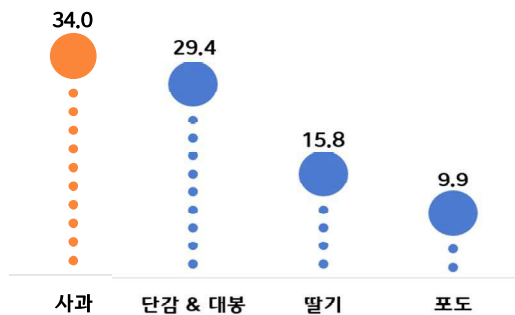
4 - 9. 지역 특화작목 육성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집중 육성 특화작목은 사과

- 장성 군민이 10명 중 3명은 장성군에서 집중 육성 특화작목으로 사과라고 응답
 - 장성군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특화작목으로 '사과'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감&대봉'(29.4%), '딸기'(15.8%), '포도'(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과'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4년(34.5%) 대비 0.5%p 감소함
- 장성 군민이 응답한 특화작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수한 맛과 품질
 - 특화작목 추천 이유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므로'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성군을 대표하는 품목이므로'(29.9%), '농가소득이 큰 품목이므로'(18.1%), '기후요건에 가장 적합하므로'(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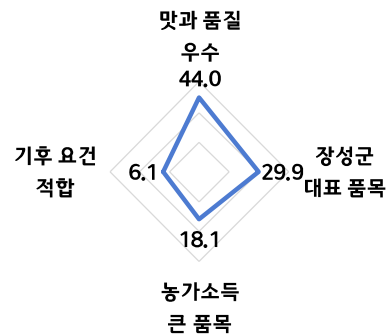
<< 집중 육성해야 할 특화작목(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품목 추천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지역 특화작목 육성 - (1) 집중 육성해야 할 특화작목

(단위 : %)

구 분	계	사과	배	딸기	단감 & 대봉	포도	토마토	새송이버섯	기타
2026년	100.0	34.0	2.4	15.8	29.4	9.9	4.5	2.4	1.7
2024년	100.0	34.5	1.2	8.7	33.5	13.9	4.6	2.0	1.6

지역 특화작목 육성 - (2) 품목 추천 이유

(단위 : %)

구 분	계	맛과 품질이 우수하므로	농가소득이 큰 품목이므로	기후요건에 가장 적합하므로	장성군을 대표하는 품목이므로	기반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기타
2026년	100.0	44.0	18.1	6.1	29.9	1.9	0.1
2024년	100.0	43.9	20.4	6.8	24.9	3.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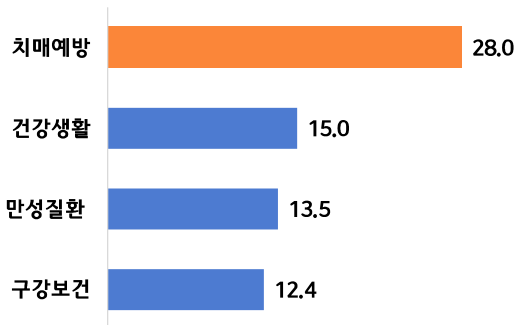
4 - 10.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추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은 치매예방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건소 사업은 치매예방이라고 응답**
 -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건소 사업으로 '치매예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생활 실천'(15.0%), '만성질환 관리'(13.5%), '구강보건'(1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치매예방'의 응답률은 28.0%로 2024년(23.9%) 대비 4.1%p 증가함
- **장성 군민이 희망하는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은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임**
 - 남자의 경우 '치매예방', '한의약 건강증진'의 응답률이 각각 26.9%, 7.5%로 여자(29.2%, 9.1%) 대비 2.3%p, 1.6%p 낮게 나타남
 - 30~39세의 경우 '치매예방'의 응답률이 13.6%로 '치매예방'에 응답한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65세 이상(32.9%)이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연령간 응답 비율이 19.3%p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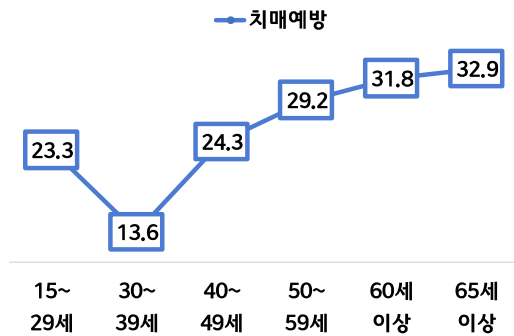
◀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

(단위 : %)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단위 : %)

구 분	계	치매예방	건강생활 실천	구강보건	금연지원	방문보건	모자보건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기타
2026년	100.0	28.0	15.0	12.4	4.4	11.7	5.2	1.4	13.5	8.3	0.3
2024년	100.0	23.9	12.9	9.6	4.6	17.6	5.5	1.8	15.5	8.4	0.3
〈 성 별 〉											
남 자	100.0	26.9	15.9	12.1	5.8	12.0	4.3	1.5	13.8	7.5	0.3
여 자	100.0	29.2	14.0	12.7	2.9	11.5	6.0	1.2	13.1	9.1	0.2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23.3	24.8	11.1	7.3	8.3	10.7	1.0	8.0	4.4	1.0
30 ~ 39 세	100.0	13.6	21.1	10.6	5.9	7.9	15.2	6.1	13.2	6.3	0.0
40 ~ 49 세	100.0	24.3	19.6	11.3	6.8	6.4	10.8	1.4	12.0	6.5	0.8
50 ~ 59 세	100.0	29.2	17.6	12.0	5.3	9.6	3.0	1.5	14.1	7.7	0.0
60 세 이상	100.0	31.8	9.8	13.3	2.6	15.2	1.8	0.6	14.7	10.1	0.1
65 세 이상	100.0	32.9	9.2	13.4	2.3	16.3	1.5	0.5	14.2	9.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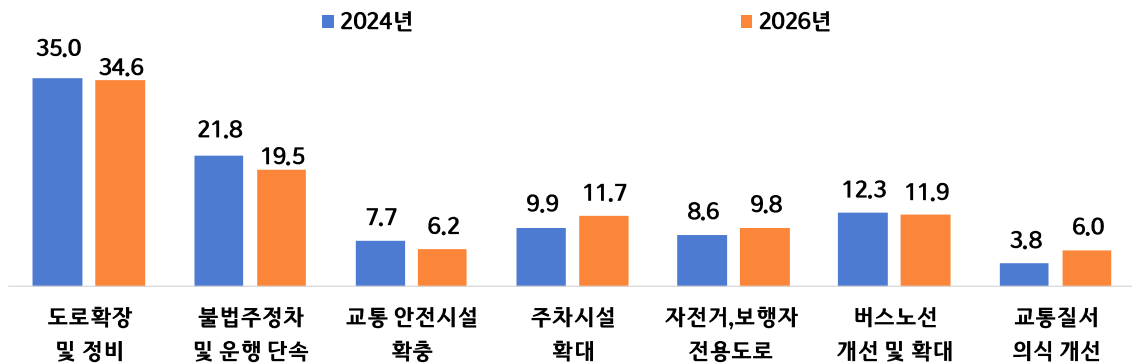
4 - 11.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도로확장 및 정비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도로확장 및 정비라고 응답
 - 장성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확장 및 정비'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19.5%), '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11.9%), '주차시설 확대'(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2024년 대비 증가한 항목은 '주차시설 확대'(11.7%),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9.8%), '운전자 및 시민 교통질서 의식 개선'(6.0%)으로 각각 1.8%p, 1.2%p, 2.2%p 증가함
-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응답비율 차이를 보임
 - 1순위인 '도로확장 및 정비'를 제외한 항목 중 중부권과 북부권은 '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이 각각 26.3%, 18.6%로 높게 나타났고, 서부권과 광주인근권은 '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로 각각 24.0%, 20.3%로 높게 나타남

<<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기타 제외) >>

(단위 : %)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단위 : %)

구분	계	도로확장 및 정비	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	교통 안전시설 확충	주차시설 확대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	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	운전자 및 시민 교통질서 의식 개선	기타
2026년	100.0	34.6	19.5	6.2	11.7	9.8	11.9	6.0	0.4
2024년	100.0	35.0	21.8	7.7	9.9	8.6	12.3	3.8	0.9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1.0	26.3	5.2	12.2	13.2	4.1	8.1	0.0
북부권	100.0	33.2	18.6	11.1	14.7	7.6	7.6	6.2	0.9
서부권	100.0	32.1	12.6	7.7	12.2	6.5	24.0	4.5	0.4
광주인근권	100.0	49.3	10.7	3.0	7.0	6.5	20.3	2.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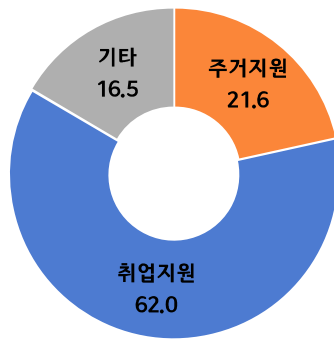
4 - 12. 청년 지원 정책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취업 지원, 주거지원

- 장성 군민 10명 중 6명은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 확충 및 취업 지원이라고 응답
 - 청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확충 및 취업 지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지원’(21.6%), ‘출산·양육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7.6%), ‘청년 참여 소통 활성화’(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주거지원 응답 2024년 대비 증가
 -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주거지원’의 응답 비율은 21.6%로 2024년(13.8%) 대비 7.8%p 증가함
 - 연령별 ‘주거지원’에 대한 응답은 65세 이상(24.3%), 60세 이상(23.5%), 15~29세(23.4%), 50~59세(20.0%), 40~49세(18.9%), 30~39세(1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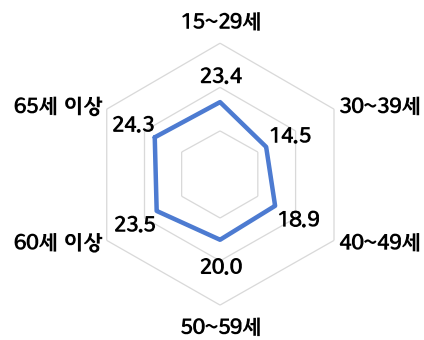
<< 청년 지원 정책(상위 2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청년 지원 정책(주거지원) >>

(단위 : %)



청년 지원 정책

(단위 : %)

구 분	계	주거지원	일자리 확충 및 취업 지원	여가문화 환경 마련	청년 참여 소통 활성화	출산·양육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기타
2 0 2 6 년	100.0	21.6	62.0	4.0	4.3	7.6	0.6
2 0 2 4 년	100.0	13.8	64.5	6.5	4.3	10.7	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3.4	59.0	6.5	7.7	1.6	1.6
3 0 ~ 3 9 세	100.0	14.5	55.6	8.3	12.2	7.1	2.3
4 0 ~ 4 9 세	100.0	18.9	68.5	4.0	0.8	7.8	0.0
5 0 ~ 5 9 세	100.0	20.0	62.1	4.7	4.3	8.9	0.0
6 0 세 이 상	100.0	23.5	62.2	2.4	2.9	8.6	0.5
6 5 세 이 상	100.0	24.3	62.1	2.2	2.9	8.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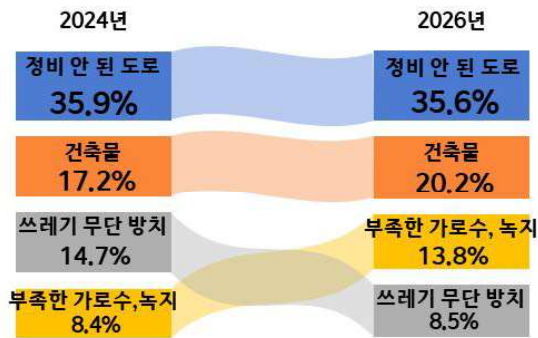
4 - 13. 도시경관 정비

정비가 시급한 도시경관은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가 정비해야 할 도시경관이라고 응답**
 - 정비해야 할 도시경관으로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축물' (20.2%),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 (13.8%), '쓰레기 무단방치' (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의 응답 비율은 2024년(35.9%) 대비 0.3%p 감소함
- **지역별 정비해야 될 도시경관은 차이를 보임**
 - 지역별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응답 비율은 광주인근권(44.8%), 북부권(36.2%), 중부권(34.6%), 서부권(3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제외한 응답의 비율은 중부권과 서부권, 광주인근권에서 각각 19.8%, 23.4%, 20.5%로 '건축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부권에서는 17.8%로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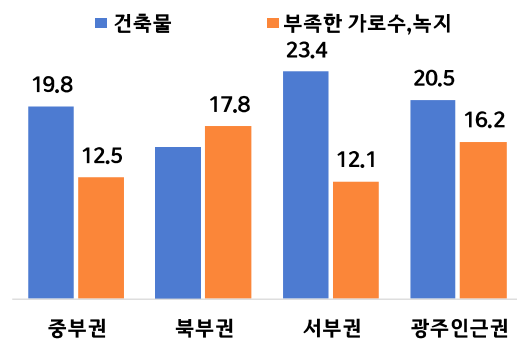
<< 도시경관 정비(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도시경관 정비(상위 2개 항목) >>

(단위 : %)



도시경관 정비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건축물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	협소한 공원	차량 무단방치	쓰레기 무단방치	무질서한 간판 및 현수막	전신주와 전선	기타
2 0 2 6 년	100.0	20.2	35.6	13.8	4.6	7.7	8.5	6.8	2.6	0.2
2 0 2 4 년	100.0	17.2	35.9	8.4	5.6	7.5	14.7	6.0	4.5	0.3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9.8	34.6	12.5	5.3	8.8	10.4	6.4	1.9	0.3
북 부 권	100.0	15.6	36.2	17.8	3.8	7.2	4.4	8.2	6.8	0.0
서 부 권	100.0	23.4	30.6	12.1	4.6	8.9	9.0	8.7	2.3	0.3
광 주 인 근 권	100.0	20.5	44.8	16.2	3.1	3.8	5.8	4.0	1.8	0.0

4 - 14.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수강여부 2024년 대비 증가

· 장성 군민 10명 중 1명은 평생교육을 수강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평생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4.6%로 2024년(9.1%) 대비 5.5%p 증가함
- 연령별 평생교육 수강여부에 대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5~29세(1.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가진 30~39세(24.8%) 대비 23.2%p 낮게 나타남

· 군민이 가장 많이 수강한 프로그램은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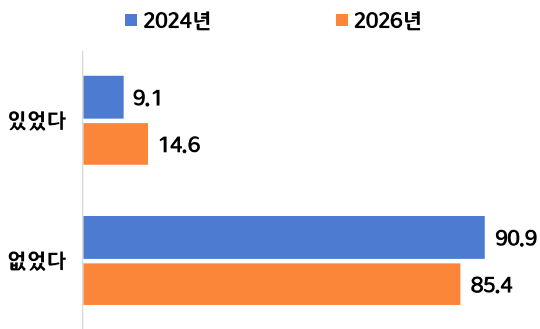
- 평생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군민 중 수강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건강관리'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교양'(27.9%), '취미반'(17.5%), '자격증반'(9.5%), '외국어 교육'(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5~29세에서는 '문화·교양'(100.0%)이, 30~39세에서는 '외국어 교육'(28.1%)이, 40세 이상에서는 '건강관리'(33.1% 이상)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가장 지원해야 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 교육

- 장성 군민 중 28.9%는 가장 지원해야 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육'을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활용'(24.6%), '직업훈련 교육'(24.2%), '댄스스포츠 등 신체활동'(14.7%)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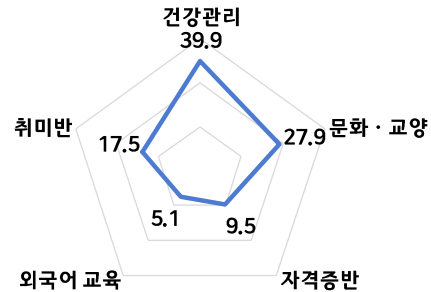
<< 평생교육 수강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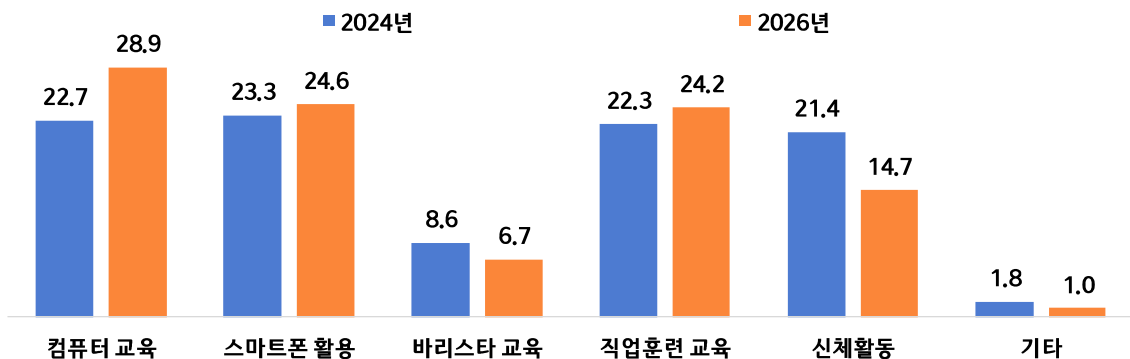
<< 평생교육 수강 프로그램(기타 제외) >>

(단위 : %)



<< 지원해야 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

(단위 : %)



평생교육 - (1) 평생교육 수강여부

(단위 : %)

구 분	계	있었다				없었다
			소계	관내	관외	
2 0 2 6 년	100.0	14.6	100.0	82.6	17.4	85.4
2 0 2 4 년	100.0	9.1	100.0	79.4	20.6	90.9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6	100.0	100.0	0.0	98.4
3 0 ~ 3 9 세	100.0	24.8	100.0	78.0	22.0	75.2
4 0 ~ 4 9 세	100.0	20.1	100.0	80.2	19.8	79.9
5 0 ~ 5 9 세	100.0	18.3	100.0	85.4	14.6	81.7
6 0 세 이 상	100.0	13.3	100.0	82.9	17.1	86.7
6 5 세 이 상	100.0	12.4	100.0	84.4	15.6	87.6

평생교육 - (2) 평생교육 수강 프로그램

(단위 : %)

구 분	계	있었다								없었다
			소계	건강관리	문화·교양	자격증반	외국어 교육	취미반	기타	
2 0 2 6 년	100.0	14.6	100.0	39.9	27.9	9.5	5.1	17.5	0.0	85.4
2 0 2 4 년	100.0	9.1	100.0	30.4	33.7	16.3	1.6	16.6	1.3	90.9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6	100.0	0.0	100.0	0.0	0.0	0.0	0.0	98.4
3 0 ~ 3 9 세	100.0	24.8	100.0	26.0	3.4	16.2	28.1	26.3	0.0	75.2
4 0 ~ 4 9 세	100.0	20.1	100.0	33.1	32.6	21.8	0.0	12.5	0.0	79.9
5 0 ~ 5 9 세	100.0	18.3	100.0	48.8	29.1	7.3	0.0	14.9	0.0	81.7
6 0 세 이 상	100.0	13.3	100.0	43.3	31.1	4.5	2.6	18.5	0.0	86.7
6 5 세 이 상	100.0	12.4	100.0	43.1	33.8	2.9	1.9	18.4	0.0	87.6

평생교육 - (3) 지원해야 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

구 분	계	컴퓨터 교육	스마트폰 활용	바리스타 교육	직업훈련 교육	댄스스포츠 등 신체활동	기타
2 0 2 6 년	100.0	28.9	24.6	6.7	24.2	14.7	1.0
2 0 2 4 년	100.0	22.7	23.3	8.6	22.3	21.4	1.8

4 - 15.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만족도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만족도 2024년 대비 증가

· 장성 군민 10명 중 5명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해봤다고 응답

-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46.3%로 2024년(35.4%) 대비 10.9%p 증가함
- 연령별 문화체육시설 이용 여부는 40~49세(5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55.6%), 50~59세(54.7%), 15~29세(49.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 10명 중 8명은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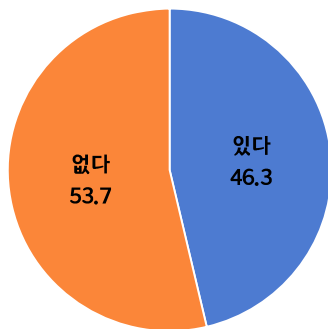
- 장성문예회관, 홍길동체육관, 군립도서관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각각 82.5%, 80.0%, 83.2%로 2024년(73.0%, 70.9%, 69.7%) 대비 9.5%p, 9.1%p, 13.5%p 증가함

·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 연령별 문화체육시설 이용 여부는 65세 이상이 63.0%로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았고, 60세 이상(61.5%), 15~29세(5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문예회관, 홍길동체육관, 군립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45.3%, 45.1%,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리가 멀어서’(34.0%, 34.1%, 33.9%)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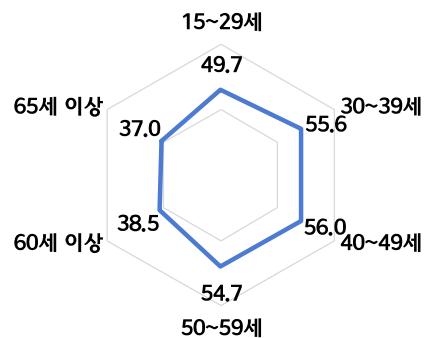
◀ 문화체육시설 이용 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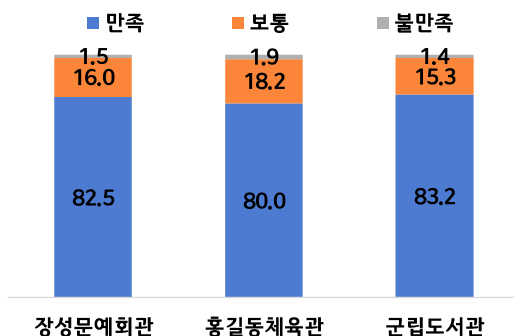
◀ 연령별 문화체육시설 이용 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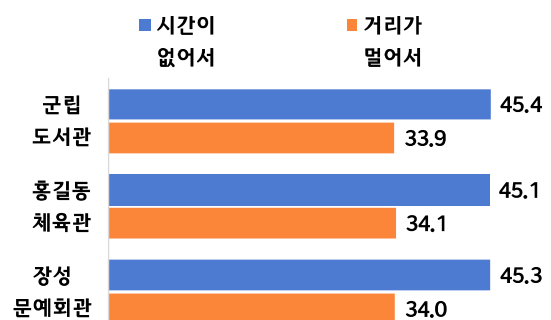
◀ 문화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

(단위 : %)



◀ 문화체육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상위 2개 항목) ▶

(단위 : %)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만족도 - (1) 이용 및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이용 해본 적이 있다									이용 해본 적이 없다	
			소계	만족	매우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1) 장성문예회관												
2 0 2 6 년	100.0	46.3	100.0	82.5	48.5	34.1	16.0	1.5	1.2	0.3	53.7	
2 0 2 4 년	100.0	35.4	100.0	73.0	46.1	27.0	26.6	0.4	0.2	0.2	64.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9.7	100.0	77.8	49.6	28.2	22.2	0.0	0.0	0.0	50.3	
3 0 ~ 3 9 세	100.0	55.6	100.0	78.8	29.7	49.0	21.2	0.0	0.0	0.0	44.4	
4 0 ~ 4 9 세	100.0	56.0	100.0	78.5	47.7	30.8	17.0	4.5	3.1	1.4	44.0	
5 0 ~ 5 9 세	100.0	54.7	100.0	85.2	49.1	36.1	13.6	1.2	1.2	0.0	45.3	
6 0 세 이상	100.0	38.5	100.0	84.8	52.5	32.3	13.8	1.4	1.3	0.2	61.5	
6 5 세 이상	100.0	37.0	100.0	83.8	50.6	33.1	15.3	1.0	0.8	0.2	63.0	
(2) 홍길동체육관												
2 0 2 6 년	100.0	46.3	100.0	80.0	47.0	33.0	18.2	1.9	1.2	0.7	53.7	
2 0 2 4 년	100.0	35.4	100.0	70.9	44.8	26.2	27.9	1.2	0.7	0.5	64.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9.7	100.0	74.6	49.6	25.0	25.4	0.0	0.0	0.0	50.3	
3 0 ~ 3 9 세	100.0	55.6	100.0	80.7	32.8	47.9	19.3	0.0	0.0	0.0	44.4	
4 0 ~ 4 9 세	100.0	56.0	100.0	76.7	45.9	30.8	18.8	4.5	3.1	1.4	44.0	
5 0 ~ 5 9 세	100.0	54.7	100.0	82.2	46.6	35.6	14.7	3.0	1.2	1.9	45.3	
6 0 세 이상	100.0	38.5	100.0	81.4	50.2	31.2	17.2	1.4	1.3	0.2	61.5	
6 5 세 이상	100.0	37.0	100.0	80.8	49.2	31.6	18.2	1.0	0.8	0.2	63.0	
(3) 군립도서관												
2 0 2 6 년	100.0	46.3	100.0	83.2	48.7	34.5	15.3	1.4	1.2	0.3	53.7	
2 0 2 4 년	100.0	35.4	100.0	69.7	46.6	23.1	29.7	0.6	0.3	0.3	64.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9.7	100.0	83.7	51.5	32.2	16.3	0.0	0.0	0.0	50.3	
3 0 ~ 3 9 세	100.0	55.6	100.0	78.3	30.7	47.6	21.7	0.0	0.0	0.0	44.4	
4 0 ~ 4 9 세	100.0	56.0	100.0	83.5	52.0	31.5	12.0	4.5	3.1	1.4	44.0	
5 0 ~ 5 9 세	100.0	54.7	100.0	87.1	50.3	36.7	10.7	2.3	2.3	0.0	45.3	
6 0 세 이상	100.0	38.5	100.0	82.1	50.2	32.0	17.1	0.8	0.6	0.2	61.5	
6 5 세 이상	100.0	37.0	100.0	80.0	48.2	31.9	19.0	1.0	0.8	0.2	63.0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만족도 - (2)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이용 해본 적이 없다								이용 해본 적이 있다	
			소계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공연/ 도서 등이 부족해서	교통이 좋지 않아서	시설이 안 좋아서	기타		
(4) 장성문예회관											
2 0 2 6 년	100.0	53.7	100.0	45.3	34.0	1.9	4.7	0.1	14.1	46.3	
2 0 2 4 년	100.0	64.6	100.0	50.0	31.9	4.5	9.2	0.3	4.1	35.4	
(5) 홍길동체육관											
2 0 2 6 년	100.0	53.7	100.0	45.1	34.1	1.9	4.7	0.1	14.1	46.3	
2 0 2 4 년	100.0	64.6	100.0	52.4	31.8	1.6	9.7	0.3	4.1	35.4	
(6) 군립도서관											
2 0 2 6 년	100.0	53.7	100.0	45.4	33.9	1.8	4.6	0.1	14.1	46.3	
2 0 2 4 년	100.0	64.6	100.0	53.0	31.3	1.9	9.3	0.3	4.1	35.4	